

---

# 국내 클러스터와 연계한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2012. 12.



## 【Executive Summary】

- 기업 입지 선정에 있어 클러스터의 존재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외투기업 유치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단,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의 역사는 매우 짧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세계적 클러스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더구나, 지역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등, 2000년 들어 추진된 다양한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외투기업정책과는 별도로 추진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음. 또한 지자체별 중점 육성 산업이 다수 중복 선정되었고, 외투기업 유치시 중점 육성 산업은 활용되지 않아 지자체별 중점 육성 산업 선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자체간 외투기업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 특히 지역별 전략산업별로 외투기업 진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부산의 기계부품소재산업 (100개사), 경남의 지식기반기계산업 (93개사),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58개사) 및 전자정보산업(50개사) 등은 외투기업도 상당수 진출해 있어 나름 클러스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전북의 RFT, 울산의 환경, 제주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소속 외투기업이 1개사도 존재하지 않는 등, 클러스터 형성 수준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
- 또한 지역별로 입지 외투기업 중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략산업에 대한 외투기업 유치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지역의 전략산업별 외투기업의 업종적합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44%로 가장 높았고, 충남 37%, 전북 36%, 울산 29%, 경북 28%, 충북 27%, 대전 26%, 경남 24%, 부산 16%, 대구 14%, 전남 13%, 강원 11%, 제주 3%로 드러났음
-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계 주

요국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는 이스라엘의 앵커기업 고용금 지원 프로그램 정도이고, 나머지는 클러스터 육성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점육성산업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세액공제나 조세감면 정책이 있는 정도임

- 더욱이 해외의 경우는 국내/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이전 혹은 입지를 지원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는 그다지 참고가 될 수 없고, 독자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음
-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한 후, 클러스터에 유치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해외 앵커 기업을 타겟팅하여 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산업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혁신적인 지역별/산업별 차별적 인센티브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지역별로 육성 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정하기 보다는, 산업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를 1개씩만 한정하여 선정함으로써 중점적으로 클러스터 성장 및 외투기업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핵심 클러스터의 선정 과정은 공정,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고, 선정단위로서의 클러스터는 반드시 공단 혹은 지자체 구분과 같은 기존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로 맺어질 수 있는 연계성 및 향후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감안하여 선정될 필요가 있음
- 클러스터에 해당 업종 기업 입지시 비해당 업종 기업에 비해서는 더 많

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되,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세분류화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산업 분류상으로는 다른 업종에 속하더라도, supply chain상 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단,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일반 기업 보다는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훨씬 큰 앵커기업 들을 타겟팅하여 이에 대해 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하되, 앵커 기업 여부는 투자 유치의 타겟팅 과정에서만 활용하고, 인센티브의 규모는 프로젝트의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고용창출, 기술 이전 등의 관점에서)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함
- 또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같은 특별구역 및 기존의 국내 산업 기반과 연계한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신규 투자 외에도 기진출한 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통한 클러스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추후 핵심 클러스터가 선정되고 나면 이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자체 혹은 국가 차원의 IR 보다는 클러스터에 대한 IR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함. 이를 위해서는 코트라를 통해 국내외 클러스터간 다양한 연계사업의 추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목 차

## Executive Summary

I.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2
3. 연구의 구성 .....	3
II.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현황 .....	4
1.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정책 .....	4
2. 클러스터별 외투기업 진출 현황 .....	9
III. 해외 주요국 클러스터 기업유치정책 .....	24
1. 미국 .....	24
(1) 몽고메리 카운티 .....	24
(2) 시카고시 .....	26
(3) 일리노이주 .....	30
(4) 인디애나주 .....	32
(5) 샌프란시스코시 .....	36
(6) 산호세시 .....	38

2. 프랑스 .....	40
3. 독일 .....	44
4. 영국 .....	46
5. 네덜란드 .....	53
6. 스웨덴 .....	56
7. 일본 .....	65
(1) 도쿄 .....	65
(2) 나고야 .....	75
(3) 오사카 .....	77
8. 이스라엘 .....	82
<b>IV. 정책적 시사점 .....</b>	<b>86</b>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업 입지에 있어 클러스터의 효율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정책입안자는 앞다투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는 아님
- 클러스터란 상호 보완적 역량을 지닌 다양한 경제 주체가 가치 사슬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혁신과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일단의 기업군이 밀집한 지역을 뜻함 (OECD 2001)
-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 다양한 연구 수준 (마이크로 = 기업 단위, 메조 = 산업·지역 단위, 매크로 = 국가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함 (OECD 1999). 동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책을 위한 클러스터 기업 유인책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지역 단위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 이나, 필요시 다른 연구 단위가 쓰이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의 클러스터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아직 생성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발전 단계에 있는 것도 있으나, 국내의 클러스터와 연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동은 미흡함 (SERI, 2010). 특히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나 투자유치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클러스터와 투자유치를 연계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
- 우리나라의 클러스터가 단기간 내에 전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앵커 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수적임. Giblin (2008)의 연구는 해외 앵커 기업의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화가 더욱 촉진되고, 지역으로의 지식 이전이 활발해진다고 주장함.
- 앵커기업(anchor tenant)이란 단어는 원래 쇼핑몰에서 트래픽을 창출하여 고객과 다른 입점 기업을 위한 외부성에 기여하는 대형 백화점을 가리키는 데서 비롯되었음 (Pashigian & Gould 1998). 지역학 및 산업고도화의

관점에 있어서 앵커기업은 (1) 연구 개발 활동에 적극적이고 (2) 특정 기술 분야에 있어 흡수력(absorptive capacity)을 지닌 규모가 큰 현지 기업으로 정의됨 (Agrawal & Cockburn 2003).

- 앵커기업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지역 내 내생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앵커 기업의 정의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 및 산업 구조 고도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앵커 기업의 기존 정의에 구현되지 않고 국내에 유치시 특정 산업 분야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파급력이 큰 기업으로 확대 정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 연구 보고서에서는 앵커 기업이 이미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클러스터의 산업 부문에 있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기업으로 정의 내리고자 함. 최근에는 앵커 기업에 대해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보기 보다는 유치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타겟팅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동 정의는 이러한 추세에도 부합함.
- 동 연구는 국내외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 유인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더 많은 해외 앵커 기업을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에 덧붙여 주요국의 주요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에 대한 해외 주요 기업 투자유치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코자 함

## 2. 연구 방법

-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조사 및 기업 DB 등을 활용하고, 관련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앵커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전략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병행함

### 3. 연구의 구성

- 동 보고서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배경 및 목적, 방법, 구성 등을 소개함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클러스터 별 외투 기업 진출 현황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주요경쟁국의 클러스터 정책 및 앵커기업 유치 정책 사례를 소개함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마무리함

## II.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현황

### 1.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정책

- 우리나라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은 1994년부터 추진된 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사업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지역 산업의 육성 정책은 지역산업진흥사업 (1999~2002), 지방기술혁신사업 (2004),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2005),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006),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2007),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2009) 등 다양한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 21세기 들어서임
- 우리나라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역사와 더불어 클러스터의 역사도 짧은 편임. 2004년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방안이 국정과제로 보고되었고, 2005년에 원주(의료기기), 반월시화(부품소재), 구미(전자), 군산(기계·자동차부품), 광주(광산업), 창원(기계), 울산(자동차)의 7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된 바 있음. 당시는 정책의 초점이 국가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의 네트워크 구축에 맞추어져 있었음

<7개 시범 단지>



\*자료원 : <http://www.e-cluster.net>

- 2007년에는 남동(기계부품), 오창(전자정보), 대구성서(메카트로닉스), 녹산(조선기자재), 대불(조선)의 5군데가 추가로 지정되었고, 2009년에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확대 개편 방안이 발표되었음

<12개 시범사업단지>



\*자료원 : <http://www.e-cluster.net>

- 2010년부터는 클러스터 외부의 혁신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5+2 광역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광역 클러스터로는 5대 광역 경제권은 수도권(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IT), 호남권(녹색성장), 대경권(IT융복합산업), 동남권(기간 및 물류산업)이 지정되었으며 2대 특별경제권으로는 강원권(의료기기), 제주권(바이오)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음

## <5+2 광역 클러스터>

### 비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

법적개념 :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수도권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충청권 :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 벨리
- 호남권 :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 대경권 :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 동남권 : 한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 강원권 :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 제주권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자료원 : <http://www.region.go.kr>

- 2009년 부터는 광역 클러스터를 뛰어넘은 지역간 연계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개발권 구상을 추진 중에 있음

<초광역개발권 구상>

## 대외개방형 국토개발로 “국가경쟁력 강화”

**법적개념** :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초광역개발권의 기본방향

-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초광역 성장지대 육성
- 동아시아의 장소경쟁에 부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의 신성장축을 구상
- 동·서·남·북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광역경제권간 연계 개발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大極) 개발 추진
-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살려 대외개방형 4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내륙축도 검토하여 초광역개발 권역을 설정
- 내륙벨트의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권역 및 개발계획 확정할 예정

\*자료원 : <http://www.region.go.kr>

-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정책과도 연계되어 정책이 개발, 수행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도 단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 R&D 역량 강화 사업, 맞춤형 특성화 사업,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 초광역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 육성책을 펼쳐오고 있음.
- 이러한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클러스터 형성기에 해당하는 1단계('05~'08)에서는 개별 산업단지가 클러스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2단계('09~'12)인 클러스터 성장기에서는 광역권에 초점을 두고 클러스터 내외 네트워크 활성화에 중점이 놓여졌다면,

내년부터 해당되는 3단계('13~'15)에서는 자생적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이 맞추어져 있음.

## 2. 클러스터별 외투 기업 진출 현황

-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정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주 바뀌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단지별 특화업종 지정에서 광역별로 특화업종을 지정함으로써 클러스터가 좀 더 넓은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음.
- 현재 지역별 클러스터 중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으나, 각 지역별 특화 산업에 맞추어 투자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은 지자체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됨.
- INSC에서 '11년 12월 31일 시점 기준 현존 외투기업 리스트를 추출한 결과,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 총 20,605개사의 외투기업이 존재하였고, 외투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14,367개사로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외투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됨.

<지역별 외투기업 수>

순위	지역	전체 외투기업수
1	서울	9,323
2	경기	3,684
3	인천	1,360
4	부산	686
5	경남	471
6	대구	359
7	충남	336
8	충북	230

순위	지역	전체 외투기업수
9	경북	225
10	전남	216
11	광주	144
12	대전	139
13	전북	134
14	강원	115
15	울산	106
16	제주	87
	미정.미상	2,990
	총계	20,605

- 정부에서는 지방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내의 클러스터에는 영향력이 큰 글로벌 플레이어나 유명 연구소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태로는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힘들 (SERI 2002). 따라서 국내 클러스터가 해외의 유명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해외 주요 앵커 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이 클러스터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전문 산업단지부터 광역 클러스터 까지 다양한 형태의 산업집적지에 “클러스터”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어, 클러스터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아래에서는 COMIS가 제공하는 지역별 전략산업 리스트와 INSC가 제공하는 작년말 현존 외투기업 리스트를 매칭하여 클러스터 별로 해당 외투기업의 진출 현황을 점검하였음.
- COMIS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13개 지역에 대해 40개의 전략산업, 526개의 특화분야 및 해당 KSIC 코드 (5단위 기준)를 제공하고 있음. 동 데이터 셋은 총1,323개의 지역 × 특화분야 매트릭스로 구성됨. 한 편으로, INSC에서 '11년 12월 31일 시점 기준 현존 외투기업 리스트를 추출한 결과,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 총 20,605개사의 외투기업이 존재하였고, 동 외투기업의 소재 지역 및 KISIC를 기준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및 특화분야 데이터를 매칭하였음.

그 결과 총 1,323개의 지역 × 특화분야 매트릭스에서 1002개의 지역 × 특화분야가 단 1개의 외투기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나머지 321건에 대해서도 특정 특화분야에 단 1개사의 외투기업이 존재하는 사례가 188건, 2개사의 외투기업이 존재하는 사례가 67건, 3개사/22건, 4개사/12건, 5개사/10건, 6개사 이상/22건에 불과하였음. 가장 많은 외투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 특화분야는 경남의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KSIC 30399)으로 무려 37개사의 외투기업이 존재하였음. 그 외 10개사 이상의 외투기업을 보유한 특화분야는 광주의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KSIC 30399) 24개사, 부산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KSIC 31114) 24개사, 충남의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KSIC 30399) 22개사, 대구의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KSIC 30399) 16개사, 경북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KSIC 26299)이 15개사, 충남의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KSIC 29271)이 12개사, 경남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 구성부분품 제조업 (KSIC 31114) 10개사, 충북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0개사 (KSIC 26299) 등이었음

#### <지역 특화분야별 외투기업 유치현황>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1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7
2	광주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4
2	부산	기계부품소재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24
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2
5	대구	메카트로닉스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16
6	경북	전자정보기기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5
7	충남	전자정보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2
8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1114	선박 및 해양구조물 구성부분품 제조업	10
8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0
10	경북	신소재부품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9
11	부산	기계부품소재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8
11	충남	전자정보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8
11	충북	반도체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8
14	경북	전자정보기기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7
14	광주	정보가전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7
14	울산	정밀화학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7
14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7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18	강원	바이오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6
18	광주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6
18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6
18	울산	정밀화학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6
18	전북	신재생에너지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6
23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5
23	경북	생물한방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5
23	대전	정보통신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23	부산	기계부품소재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
23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5
23	울산	정밀화학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5
2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2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5
2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5
23	충남	전자정보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5
33	경남	산업용로봇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4
33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4
33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4
33	광주	광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4
33	광주	정보가전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4
33	대구	전자기기정보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4
33	대전	메카트로닉스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4
33	대전	정보통신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4
33	울산	조선해양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4
33	전남	신소재·조선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4
33	전북	신재생에너지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4
33	충북	반도체	29271	반도체제조용 기계제조업	4
45	경남	지능형홈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3
45	경남	지능형홈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45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
45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3
45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3
45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3
45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
45	광주	광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3
45	대구	메카트로닉스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45	대구	메카트로닉스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
45	대전	바이오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3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45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
45	부산	기계부품소재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
45	부산	영상IT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45	전남	신소재·조선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3
45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3
4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
45	충남	전자정보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3
45	충남	전자정보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
45	충남	전자정보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3
45	충북	바이오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3
45	충북	반도체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
67	강원	신소재방재	23311	시멘트 제조업	2
67	강원	신소재방재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
67	경남	지능형흙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
67	경남	지능형흙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
67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
67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
67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1111	강선 건조업	2
67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
67	경북	신소재부품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67	경북	신소재부품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
67	경북	신소재부품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2
67	경북	신소재부품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
67	경북	전자정보기기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
67	경북	전자정보기기	26291	전자관 제조업	2
67	경북	전자정보기기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
67	경북	전자정보기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
67	광주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
67	광주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2
67	광주	정보가전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
67	대구	메카트로닉스	23992	연마재 제조업	2
67	대구	메카트로닉스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
67	대구	메카트로닉스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
67	대구	메카트로닉스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
67	대구	섬유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
67	대구	전자기기정보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
67	대구	전자기기정보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67	대전	정보통신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67	대전	정보통신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
67	대전	첨단부품 및 소재	20412	농약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4123	철강선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4131	주철관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
67	부산	기계부품소재	31111	강선 건조업	2
67	부산	영상IT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
67	부산	영상IT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
67	부산	영상IT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67	울산	자동차	28202	축전지 제조업	2
67	울산	자동차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
67	울산	정밀화학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
67	울산	조선해양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
67	전남	생물	1022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
67	전남	신소재·조선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
67	전남	신소재·조선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
67	전남	신소재·조선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
67	전북	생물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2
67	전북	신재생에너지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
67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
67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
67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
67	충남	전자정보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
67	충남	전자정보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
67	충남	전자정보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
67	충남	전자정보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
67	충남	전자정보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
67	충남	첨단문화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
67	충북	바이오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
67	충북	바이오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
67	충북	바이오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
67	충북	바이오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2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67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
67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
134	강원	바이오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
134	강원	바이오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1
134	강원	의료기기	27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1
134	경남	바이오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
134	경남	산업용로봇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1
134	경남	산업용로봇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1
134	경남	산업용로봇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
134	경남	산업용로봇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
134	경남	지능형홈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7219	기타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29221	전자응용공작기계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1
134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1
134	경북	생물한방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
134	경북	생물한방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
134	경북	생물한방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
134	경북	신소재부품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1
134	경북	신소재부품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1
134	경북	전자정보기기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1
134	경북	전자정보기기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1
134	경북	전자정보기기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
134	경북	전자정보기기	28202	축전지 제조업	1
134	경북	전자정보기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
134	광주	광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
134	광주	광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
134	광주	광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
134	광주	광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
134	광주	디자인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
134	광주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1
134	광주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1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134	광주	정보가전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
134	광주	정보가전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1
134	광주	정보가전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134	대구	메카트로닉스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1
134	대구	메카트로닉스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
134	대구	메카트로닉스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
134	대구	메카트로닉스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
134	대구	메카트로닉스	28201	일차전지제조업	1
134	대구	생물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
134	대구	섬유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
134	대구	섬유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
134	대구	전자기기정보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
134	대구	전자기기정보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
134	대구	전자기기정보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1
134	대전	메카트로닉스	29221	전자응용 동작기계 제조업	1
134	대전	메카트로닉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134	대전	바이오	21101	의약품 화학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
134	대전	바이오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
134	대전	바이오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
134	대전	바이오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
134	대전	바이오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1
134	대전	바이오	7390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34	대전	정보통신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
134	대전	정보통신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
134	대전	첨단부품 및 소재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1
134	대전	첨단부품 및 소재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
134	대전	첨단부품 및 소재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
134	대전	첨단부품 및 소재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4132	강관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8112	변압기 제조업	1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62	승강기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194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1
134	부산	기계부품소재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1
134	부산	영상IT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
134	부산	영상IT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
134	부산	영상IT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
134	부산	해양(바이오)	20433	화장품 제조업	1
134	울산	정밀화학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1
134	전남	생물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
134	전남	생물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
134	전남	생물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
134	전남	생물	20412	농약 제조업	1
134	전남	생물	20433	화장품제조업	1
134	전남	생물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
134	전남	신소재·조선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1
134	전남	신소재·조선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
134	전남	신소재·조선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1
134	전남	신소재·조선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1
134	전남	신소재·조선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
134	전남	신소재·조선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
134	전남	신소재·조선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1
134	전북	생물	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1
134	전북	생물	10110	도축업	1
134	전북	생물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
134	전북	생물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134	전북	생물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
134	전북	생물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
134	전북	생물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
134	전북	생물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
134	전북	생물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
134	전북	신재생에너지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1
134	전북	신재생에너지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
134	전북	신재생에너지	23110	판유리 제조업	1
134	전북	신재생에너지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
134	전북	신재생에너지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
134	전북	신재생에너지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1
134	전북	신재생에너지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
134	전북	신재생에너지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5921	금속 열처리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1
134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1
134	제주	생물	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1
134	제주	생물	3213	수산물 부화 및 증묘 생산업	1
134	제주	생물	1022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처리업	1
134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
134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
134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
134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1
134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1
134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21220	한의학약품 제조업	1
134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1

순위	지역	전략산업	KSIC	특화분야 분류명	기업수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1
134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1
134	충남	전자정보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1
134	충남	전자정보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1
134	충남	전자정보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
134	충남	전자정보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
134	충남	전자정보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
134	충남	전자정보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
134	충남	첨단문화산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134	충남	첨단문화산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
134	충남	첨단문화산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1
134	충남	첨단문화산업	63111	자료 처리업	1
134	충북	바이오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
134	충북	바이오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1
134	충북	바이오	70121	전기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1
134	충북	반도체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1
134	충북	반도체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134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1
134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1
134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293	전기저항기 제조업	1
134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
134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
134	충북	차세대전지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1
134	충북	차세대전지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1
134	충북	차세대전지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
134	충북	차세대전지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

- 위의 지역별 특화산업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클러스터별 외투기업의 집적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전략산업이 더 적합함. 지역별 전략산업별로 소속 외투기업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부산의 기계부품소재산업 100개사, 경남의 지식기반기계산업 93개사, 충남의 자동차 부품산업 58개사, 충남의 전자정보산업 50개사, 광주의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36개사, 대구의 메카트로닉스 35개사, 경북의 전자정보기기 35개사, 충북의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개사, 울산의 정밀화학 21개사, 전남의 신소재·조선 20개사,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20개사 등의 순으로 소속 외투기업이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전북의 RFT, 울산의 환경, 제주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소속 외투기업이 단 1개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 전략산업별 외투기업 유치현황>

순위	지역	전략산업	소속 외투기업 수
1	부산	기계부품소재	100
2	경남	지식기반기계산업	93
3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58
4	충남	전자정보산업	50
5	광주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36
6	대구	메카트로닉스	35
6	경북	전자정보기기	35
8	충북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
9	울산	정밀화학	21
10	전남	신소재·조선	20
10	전북	신재생에너지	20
12	경북	신소재부품	19
13	충북	반도체	17
13	전북	자동차부품·기계	17
15	광주	정보가전산업	16
16	대전	정보통신	15
17	충북	바이오	14
18	부산	영상IT	12
19	경남	지능형홈산업	11
19	대구	전자기기정보	11
19	광주	광산업	11
19	전북	생물	11

순위	지역	전략산업	소속 외투기업 수
23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10
24	대전	바이오	9
25	경남	산업용로봇	8
25	경북	생물한방	8
25	전남	생물	8
25	강원	바이오	8
29	충남	첨단문화산업	6
29	대전	메카트로닉스	6
29	대전	첨단부품 및 소재	6
29	울산	조선해양	6
33	대구	섬유	4
33	충북	차세대전지	4
33	강원	신소재방재	4
33	울산	자동차	4
37	제주	생물	3
38	부산	해양(바이오)	1
38	경남	바이오산업	1
38	대구	생물	1
38	광주	디자인산업	1
38	강원	의료기기	1
43	전북	RFT	0
43	울산	환경	0
43	제주	디지털콘텐츠	0

- 지역의 전략산업별 외투기업의 업종적합률을 살펴본 결과, 지역 소재 전체 외투기업 3,248개사 중 소재 지역 전략산업 해당 외투기업수는 747개사로 전체 외투기업의 업종적합률은 23%로 드러났음. 이는 전체 외투기업의 3/4 이상이 해당 지역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 속함을 보여줌. 외투기업의 지역별 업종적합률은 광주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충남 37%, 전북 36%, 울산 29%, 경북 28%, 충북 27%, 대전 26%, 경남 24%, 부산 16%, 대구 14%, 전남 13%, 강원 11%, 제주 3%의 순이었음.

<지역 전략산업별 외투기업 업종 적합률>

지역	전략산업	해당 외투기업수	전체 외투기업수	업종적합률
충남	농축산바이오산업	10		
	자동차부품산업	58		
	전자정보산업	50		
	첨단문화산업	6		
	합계	124	336	0.37
부산	기계부품소재	100		
	영상IT	12		
	해양(바이오)	1		
	합계	113	686	0.16
경남	바이오산업	1		
	산업용로봇	8		
	지능형홈산업	11		
	지식기반기계산업	93		
	합계	113	471	0.24
광주	광산업	11		
	디자인산업	1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36		
	정보가전산업	16		
	합계	64	144	0.44
경북	생물한방	8		
	신소재부품	19		
	전자정보기기	35		
	합계	62	225	0.28
충북	바이오	14		
	반도체	17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26		
	차세대전지	4		
	합계	61	230	0.27
대구	메카트로닉스	35		
	생물	1		
	섬유	4		
	전자기기정보	11		
	합계	51	359	0.14

지역	전략산업	해당 외투기업수	전체 외투기업수	업종적합률
전북	생물	11		
	신재생에너지	20		
	자동차부품·기계	17		
	RFT	0		
	합계	48	134	0.36
대전	메카트로닉스	6		
	바이오	9		
	정보통신	15		
	첨단부품 및 소재	6		
	합계	36	139	0.26
울산	자동차	4		
	정밀화학	21		
	조선해양	6		
	환경	0		
	합계	31	106	0.29
전남	생물	8		
	신소재·조선	20		
	합계	28	216	0.13
강원	바이오	8		
	신소재방재	4		
	의료기기	1		
	합계	13	115	0.11
제주	디지털콘텐츠	0		
	생물	3		
	합계	3	87	0.03
지역 전체	합계	747	3,248	0.23

### Ⅲ. 해외 주요국 클러스터 기업유치정책

#### 1. 미국

##### (1) 몽고메리 카운티

□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Montgomery County) 바이오 클러스터

###### ○ 몽고메리 카운티

- 워싱턴 DC의 북쪽, 볼티모어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있음
- 미국 전역에서 13번째로 부유한 지역
-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생명공학 클러스터이며 250개가 넘는 대표적인 생명과학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음
- 많은 생명의학 연구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몽로메리 캠퍼스, 하위즈 휴즈 의학연구소 등의 기관에 의해 수행됨

###### ○ 산업 클러스터 입주 시 지원정책

- 입주 지역 발굴 지원 (site location assistance)
- 빠른 허가증 발급 지원 (Fast Track Permits): 신속한 건물 허가 및 관련 승인 지원
- Networking Resources: 필요한 변호사, 회계사, 은행 등 소개 및 공공 / 민간 자금조달 (융자) 절차지원
- 중소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인력개발 서비스 (Workforce Development Service): 30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교육, 훈련,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인큐베이터 센터: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5개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센터를 운영
  - Shady Grove Innovation Center
  - Silver Spring Innovation Center
  - Wheaton Business Innovation Center
  - Rockville Innovation Center
  - Germantown Innovation Center
- 몽고메리 카운티 세금혜택
  - 카운티에서 지원되는 바이오 기업 투자 세액공제 프로그램: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투자가에는 국가 세금공제의 추가로 지방자치제에서 보충 지분을 받을 수 있음.
- 메릴랜드 주정부 세금혜택
  - 연구개발 세금 공제
  - 바이오 기업 투자 세금 공제: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에 최소 \$25,000을 투자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소득세 공제
- Economic Development Fund Grant / Loan Program
  -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첨단 기술 및 제조기업을 설립 /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간 공용주에게 적용됨
- Maryland Venture Fund
  - 주 정부에서 바이오 기업에 직접 투자 또는 벤처 캐피탈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
- 세금공제 신청절차
  - 온라인 상으로 신청 접수 후 관련 기관의 검토 및 최종 결정  
<http://www.choosemaryland.org/businessresources/pages/biotechnologyinvestmenttaxcredit.aspx>

- 몽고메리카운티의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해외기업
  - QIAGEN Sciences (독일)
  - Canon U.S. Life Sciences (일본)
  - Roche Pharmaceuticals (스위스)

## (2) 시카고시

### □ 시카고 무역관 관할지 내의 산업 클러스터

#### ○ 미국 중서부 지역의 공작기계 클러스터

- 미국 공작기계 클러스터 발전과정
  - 중서부 공작기계 클러스터는 혁신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미국 내 성공적인 클러스터 중 하나로써 각종 부품 및 기계 등 전통적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 ‘자연 발생적’이고, ‘지역 특화적’인 클러스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
  - 미국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공작기계 클러스터’는 기업 환경, 생활비 수준, 다양한 정부 투자 진흥책과 발달된 교통망, 우수한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발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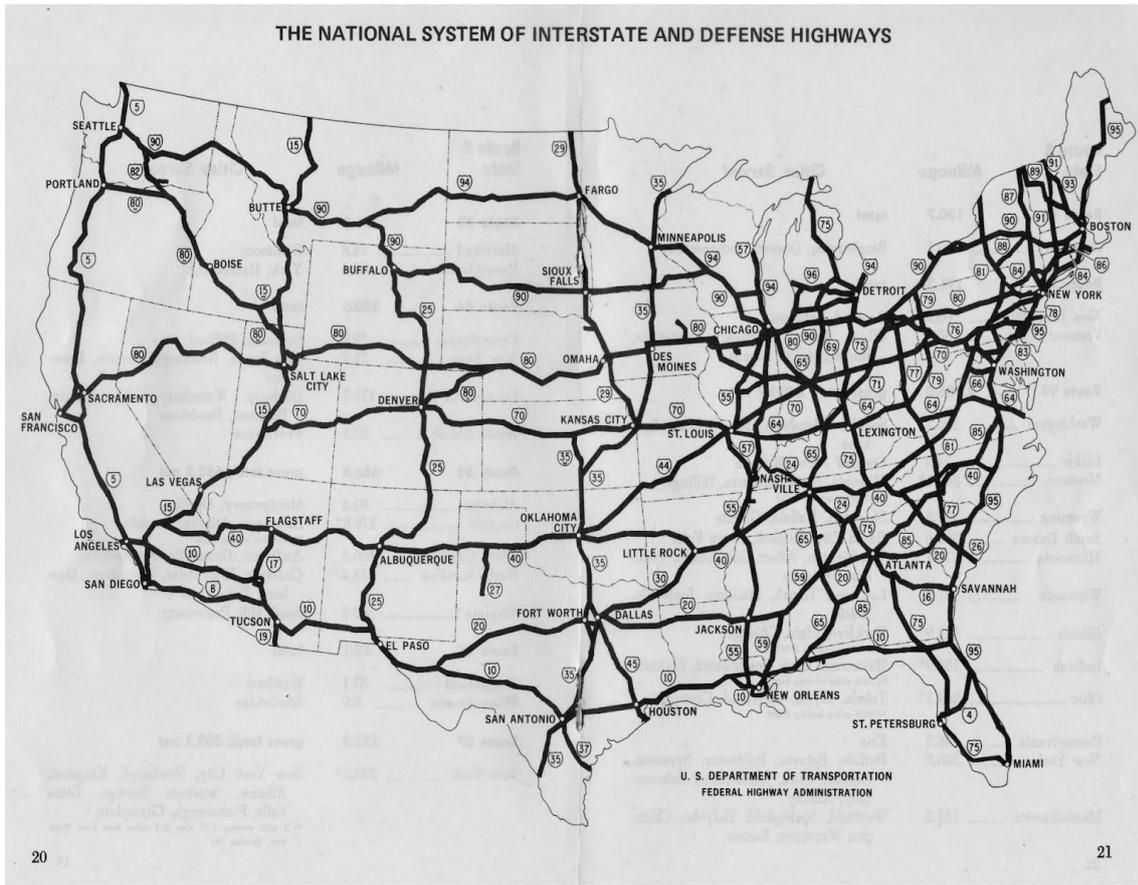
	Apr 11 (P)	Previous Month	% Change	Year Ago Month	% Change	YTD 11 (P)	YTD 10 (R)	% Change YTD
<b>National</b>								
Metal Cutting	361.38	468.00	-22.8%	206.17	75.3%	1,470.58	709.34	107.3%
Metal Forming & Fabricating	35.54	34.69	2.4%	20.82	70.7%	125.40	68.18	83.9%
<b>Total</b>	<b>396.92</b>	<b>502.69</b>	<b>-21.0%</b>	<b>226.99</b>	<b>74.9%</b>	<b>1,595.98</b>	<b>777.52</b>	<b>105.3%</b>
<b>Regional</b>								
<b>Northeast</b>								
Metal Cutting	52.01	71.14	-26.9%	31.89	63.1%	223.33	114.44	95.2%
Metal Forming & Fabricating	6.25	6.28	-0.5%	4.09	52.8%	17.31	10.05	72.3%
<b>Total</b>	<b>58.26</b>	<b>77.43</b>	<b>-24.8%</b>	<b>35.98</b>	<b>61.9%</b>	<b>240.64</b>	<b>124.48</b>	<b>93.3%</b>
<b>South</b>								
Metal Cutting	48.20	38.01	26.8%	27.48	75.4%	168.36	108.65	55.0%
Metal Forming & Fabricating	3.10	7.47	-58.5%	4.34	-28.6%	16.57	14.85	11.6%
<b>Total</b>	<b>51.30</b>	<b>45.47</b>	<b>12.8%</b>	<b>31.82</b>	<b>61.2%</b>	<b>184.93</b>	<b>123.50</b>	<b>49.7%</b>
<b>Midwest</b>								
Metal Cutting	115.65	197.98	-41.6%	52.72	119.4%	516.40	200.90	157.0%
Metal Forming & Fabricating	8.68	7.66	13.3%	4.49	93.6%	37.98	15.09	151.7%
<b>Total</b>	<b>124.34</b>	<b>205.64</b>	<b>-39.5%</b>	<b>57.20</b>	<b>117.4%</b>	<b>554.39</b>	<b>215.99</b>	<b>156.7%</b>
<b>Central</b>								
Metal Cutting	108.19	116.23	-6.9%	67.11	61.2%	418.64	193.76	116.1%
Metal Forming & Fabricating	12.58	10.91	15.3%	6.54	92.3%	37.70	20.89	80.5%
<b>Total</b>	<b>120.77</b>	<b>127.14</b>	<b>-5.0%</b>	<b>73.65</b>	<b>64.0%</b>	<b>456.34</b>	<b>214.65</b>	<b>112.6%</b>
<b>West</b>								
Metal Cutting	37.33	44.65	-16.4%	26.97	38.4%	143.84	91.59	57.1%
Metal Forming & Fabricating	4.92	2.36	108.2%	1.36	261.7%	15.83	7.30	116.9%
<b>Total</b>	<b>42.25</b>	<b>47.01</b>	<b>-10.1%</b>	<b>28.33</b>	<b>49.1%</b>	<b>159.68</b>	<b>98.89</b>	<b>61.5%</b>

Data for the Metal Forming & Fabricating Equipment category has been revised to include Laser, Welding, and Plasma Equipment.



\$ = millions of dollars  
P – preliminary  
R – revised  
\* – percent change greater than 1,000%  
Totals may not match due to rou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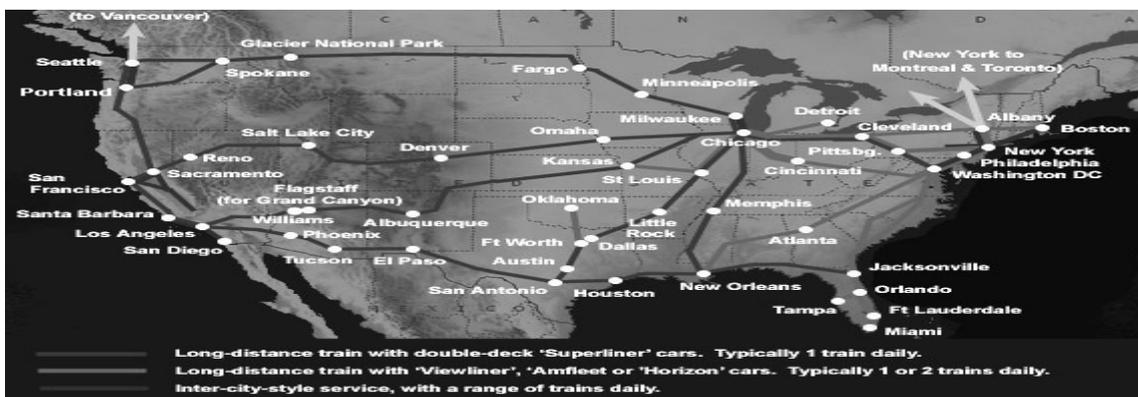
- 중서부 공작기계 산업의 초기 기업 집적 요인
  -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
  - 일리노이 주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달된 고속도로가 서부와 동부를 이어주는 중심지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 철도 교역의 최대 집산지
  - 미국 동부와 서부를 잇는 철도 교역의 최대 집산지로서 중서부 최대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미국 철도 지도>



- 공항 및 다수의 국제공항 보유
  - 미국 최대 규모의 '오헤어 국제공항 (O'hare International Airport)'을 비롯한 2개의 국제공항과 다수의 국내공항 보유
  -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물류 이동의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중서부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 평균 시간>



- 우수 교육기관으로 부터의 전문 인력 공급
  -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정규 대학과 일리노이 공과대학(IIT)을 비롯한 공과대학이 산재해 있어 클러스터 내 주요 산업시설에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클러스터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 뿐 아니라 노스웨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디폴대, 로올라 대학등의 우수한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보험, 법률, 회계,경영, 홍보 등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매년 배출되어 클러스터의 유기성을 촉진함
  - 이와 같은 성공요인들이 결합되어 미국 중서부 지역에 공작기계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였으며,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초기 클러스터의 형태를 벗어나 보다 진화된 형태의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선진 기업과 우수한 연구기관의 연계적인 성장
  - 성공한 기업의 보유 여부는 산업 클러스터 성공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수한 연구기반의 대학과 부설 연구소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동체제는 공작기계 클러스터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실례로 일리노이 락포드(Rockford)에 위치하고 있는 ‘인저솔 밀링머신 컴퍼니 (Ingersoll Milling Machine Company)’는 미국 8대 공작기계 생산업체중 하나로써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기업의 보유여부가 클러스터 내 기업집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기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및 항공기 부품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및 연구지원 센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연구 인력은 공작기계 클러스터와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촉진하는 ‘혁신단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음

### (3) 일리노이주

#### □ 일리노이주의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

-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세금공제 정책 (Economic Development For a Growing Economy Tax Credit Program, EDGE)
  - 일리노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공공제 프로그램임
  - 일리노이의 세금공제 프로그램 인증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5-25인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함
  - 상기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최대 10년까지 세액공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함
- 엔터프라이즈 존 프로그램 (Enterprise Zon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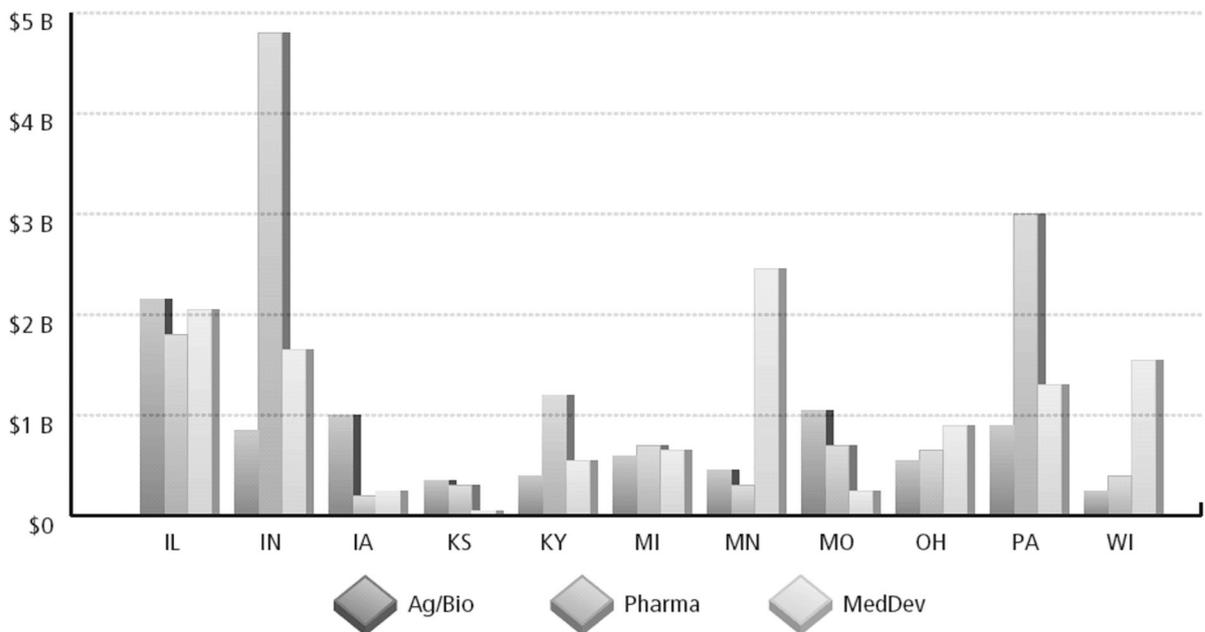
- 일리노이 지역의 산업 침체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엔터프라이즈 존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일정 수준의 세금 공제와 더불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촉진 프로그램과 기타 서비스 제공
- 제조업 용자 프로그램 (Manufacturing Modernization Loan Program)
  - 일리노이 주재 제조업체들의 생산 시설 현대화를 위해 민간 기관 및 정부 기관 주체로 조성된 자금을 용자해주는 프로그램
    - 타주 또는 외국 소재 기업들의 공작기계 클러스터 내 유입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교육훈련투자 프로그램 (Employer Training Investment Program)
  - 일리노이 고용자들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 향상과 신기술 교육을 위해 마련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이러한 교육훈련투자 프로그램은 클러스터의 생산성을 향상, 비용감소, 품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일선 생산라인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선발된 전문 인력을 세부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신제품의 개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를 창출
- 선도 기업 지원 정책 (High Impact Business/HIB)
  - 선도 기업의 지역 내 유치에 위한 정책으로써 투자 금액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 선정 시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12M 이상의 투자와 500이상의 신규 정규직 채용 또는 \$30M 이상의 투자금과 1500이상의 근로자 고용 유지 조건
  - Coal/Energy HIB, Wind Energy HIB 등 분야별로 인센티브 차등

#### (4) 인디애나주

##### □ 인디애나주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는 캘리포니아 베이 클러스터, 샌디애고 클러스터, 인디애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음
- 이 중 인디애나 바이오 클러스터는 ‘의료기기(Medical Device & Supplier)’와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양적 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인디애나 의료기기 클러스터에는 대기업, 벤처기업 및 대학 연구소, 관련 정부기관, 투자자 등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를 중심으로 지리적 근접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009 의료기기 분야별 수출 현황>



- 연구조사 전문기관인 ‘BIO’가 2004년 실시한 조사 프로젝트 ‘State Bioscience Initiative 2004’ 결과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의료 기기’ 및

‘제약’ 분야에 있어서 미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 및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3대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 의료기기 클러스터의 발전 과정

- 1994년 인디애나주의 의료기기 생산 및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연합체 성격인 인디애나 건강산업 포럼(Indiana Health Industry Forum, IHIF)이 창설되면서 클러스터의 형성이 본격화되기 시작되었음
- 이는 인디애나 지역에 전통적으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기 생산업체 및 제약 회사들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클러스터가 태동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장려 책을 통하여 해외의 기업들 유치에 성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음

<인디애나 바이오 사업>

Metrics	Indiana	United States	Rank*
<b>Bioscience Industry, 2010</b>			
Total Bioscience Industry Employment	59,786	1,605,533	I
Bioscience Industry Location Quotient	1.73	n/a	I
Biosciences Industry Establishments	2,030	70,006	I

\*State ranking figures for bioscience industry employment metrics are calculated as quintiles (I=Top Quintile; V=Bottom Quintile).

- 교통의 중심지

- 인디애나폴리스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공항, 트럭 운송 및 항만 시설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물류 이동의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중서부 일대 수출과 수입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 물류 운송의 기본인 육상 교통의 경우 7개의 고속도로가 인디애나 폴리스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달되어 있어 중서부 일대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교통망이 집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잘 발달된 교통망은 인디애나 바이오 클러스터와 시장과의 지리적, 공간적 거리감을 단축시켜 보다 효율적인 제품의 운송과 분배를 가능케 하고, 최종소비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져 최소의 마케팅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획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인디애나폴리스를 기점으로 3개의 국제공항이 있고, 인접한 주인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주 국제 공항과의 연계 역시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시간 호와 인접한 항만에서는 연간 2백만 톤 이상의 화물이 선적되고 있음
  - 인디애나폴리스를 중심으로 625마일 이내에 미국 전체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디애나 폴리스로부터의 일일 운송 가능 지역이 미국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우수한 교육 환경
- 우수한 의료 대학들이 인디애나주에 위치해 우수 인력의 대량 양산과 이로 인한 클러스터 내로의 우수인적 자원 확보 용이성은 인디애나 클러스터의 기업 집적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 인디애나 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주요 도로망을 따라 37개의 정규 대학과 23개의 전문화된 공과대학이 산재해 있어 클러스터 내 주요 산업시설에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산업 환경
- 타주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 수준, 저렴한 에너지 소비비 등이 의료기기 클러스터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디애나 평균 임금의 경우, 2011년 기준 3만 9천 달러 수준으로 이는 같은 중서부 지역의 일리노이주(\$46,550), 동부의 뉴욕주(\$52,810), 서부의 캘리포니아(\$51,910)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산업 지원 기관
- 인디애나주립대, 퍼듀, 노틀담 대학 등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 대학들의 의료기기 관련 연구소와 연구 인력들이 클러스터 내에 조성된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어 의료기기 기술의 혁신과 역할 그룹간의 기술 이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중임
  - 성공한 기업 입주 및 우수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결합체 'zimmer(Zimmer)', 가디언트(Guidiant)', 바이오메트(Biomet)' 등 대표적인 의료기기 기업들의 성공은 의료기기 클러스터 발전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인디애나 의료기기 클러스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미국 내 2번째로 큰 규모의 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인디애나 주립대와 바이오 및 나노 기술의 미국 내 선두 주자인 노틀담 대학, 화학 및 생명공학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퍼듀 대학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클러스터내의 의료관련 기업들과 연계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중임

## □ 인디애나(Indiana)주의 대표적인 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

### ○ 사업투자 세금공제 정책(Hoosier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 인디애나 소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Investment Tax Credit)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감면 제도임
- 상기 제도는 최근 유통 및 보관 장비에 대한 구매 행위까지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HBITC' 인증을 위한 지원 기업의 자격 조건 중 '1년 이상의 기업 운영 실적'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지 기업들의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음
- 또한, 해당 기업은 인디애나 상무부가 인정하는 9년 미만의 기간 동안 상기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인디애나 주 소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 에지 크레딧 (Edge Credits)

- 인디애나 유망 기업 지원책(Indiana's Economic Development for a Growing Company)의 약칭으로 고용 창출, 자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감면 인센티브임
- 법인 소득세를 신규 고용 창출로 인한 원천세 증가분의 100%내에서 공제, 환급

### ○ 본사이전 세금공제정책(Headquarters Relocation Tax Credit)

- 500만 달러(\$5,000,000)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중 타주에 있는 본사를 인디애나 주로 이전할 때 본사 이전에 드는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정부 세금 (State Tax Liability)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 실제로, 인디애나 상무부가 제정한 인디애나 본사이전 세금공제정책 (Hoosier Headquarters Relocation Tax Credit)은 외부기업들이 클러스터내로 진입 시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하나로써 외부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음

## (5) 샌프란시스코시

### □ 샌프란시스코 시 Biotechnology 세금 혜택

- 샌프란시스코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payroll tax(주로 '급여세' 혹은 '종업원 세금', 직원들에게 총 25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기업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74만 달러 이상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2012년 10월 현재 샌프란시스코 일자리 5분의 1이 바이오테크계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 바이오테크 Payroll Tax Exclusion

대상	샌프란시스코 시에 위치한 바이오테크 사업체에 7년 6개월 동안 급여세의 1.5% 공제
조건	2014년 8월 11일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시 내에 위치한 자격을 충족하는 바이오테크 사업체
공제내역	- 전 직원의 급여세 공제 - 외부계약직은 제외
First Source 고용 프로그램	- 고용주는 "Employer's Projection of Entry Level Positions"를 작성하여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에 1월 31일까지 급여세 공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가 처음 승인된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고와 기록	- 고용인 증명서: 연간 증명서를 작성하여 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에 신청서가 처음 승인된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적격고용인 증명서: 고용인들의 작업 계획표를 적합한 문서로 작성하여 Tax Collector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자격 갱신	승인 후, 갱신을 위한 연간 증명서를 작성하여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신청서가 처음 승인된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가 정보	"Business and Tax Regulations Code" section of the San Francisco Muncial Code (Article 12-A, Sec 906.1) 참고

○ 프로세스

1단계	신청서 작성,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제출
2단계	검토 후, 신청서 접수 10일안에 결과 통보
3단계	급여세 환급 신청서(Payroll Expense Tax Return) 작성
4단계	선정되지 않은 경우, denial letter로 통보
5단계	First Source Hiring Program 등록 및 참여
6단계	보고 및 기록 관리
7단계	자격 갱신

샌프란시스코 시 Clean Technology 세금 혜택

○ 클린테크 Payroll Tax Exclusion

대상	샌프란시스코 시에 위치한 클린테크 사업체에 최대 10년까지 급여세 공제
조건	- 샌프란시스코 Green Business Program 인증 - 풀타임 정직원이 100명 이하 - 클린에너지 개발, 제조, 또는 생산하거나 생산 관련 과학정보의 응용에 종사
공제내역	- 풀타임 직원의 급여세 공제
클린에너지	풍력, 태양열, 매립지 가스, 지열 에너지, 해양 온도차 발전, 정량화된 에너지 보존 수단, 조석 에너지, 파동 에너지,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로부터 추출된 수소연료로부터 생산된 에너지

○ 프로세스

1단계	조건충족, Green Business Program 인증 (프로그램 인증 최대 6개월 소요)
2단계	- 마감기간까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승인 시, "Certificate of Eligibility" 수령
3단계	- 매년 신청서 갱신 - 갱신하려는 신청서의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4단계	급여세 환급 신청서(Payroll Expense Tax Returns) 작성 및 선행 과세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

(6) 산호세시

산호세시 Business Incubation Program

- 산호세 시의 인큐베이터 네트워크는 일자리 창출, 새 기술의 상업화, 지역경제 강화의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에 유연한 장소과 동시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초기단계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산호세 바이오센터
  - 최첨단 생명 과학 인큐베이터
  - 연구실, 연구 장비, 생명과학 및 미래 유망기술 상업화 지원

- 사업가, 초기단계,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위한 이노베이션 허브
  - 2009년, 세계 최고 인큐베이터로 선정 by the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 담당자: Erika Kula,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at 415.828.1498 or [erika@prescienceintl.com](mailto:erika@prescienceintl.com)
- 환경 산업 클러스터
    - 산호세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센터에 위치
    - 사무실 공간, 상업화 지원, 초기단계,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클린 에너지 및 환경 기술 기업에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담당자: Erika Kula,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at 415.828.1498 or [erika@prescienceintl.com](mailto:erika@prescienceintl.com)
- 미국 시장 액세스 센터
    - 산호세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센터에 위치
    - 국제 테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의 게이트웨이
    - 풀서비스 사무실 공간, 시장진입 전략, 시장 조사, 고객선도 등의 컨설팅 지원
    - 담당자: Omar Mencin, Executive Director, at 408.351.3338 or [omar@usmarketaccess.com](mailto:omar@usmarketaccess.com)
- 산호세 기업가 센터
    - 산호세 다운타운 이노베이션 센터에 위치
    - 기업가에 무료 또는 저비용 컨설팅, 파이낸싱 프로그램, 비즈니스 트레이닝, 국제 무역 지원, 이민자 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 아일랜드 이노베이션 센터
    - 아일랜드 테크 기업 지원
    - 벤처 기업, 은행, 고객, 공급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무실 공간, 리셉션, 사무보조, 법률, 재무, 인사, IT 기술 지원 제공



□ 주요현황

- 2011년 기준 536개 외국기업이 프랑스의 혁신 클러스터에서 활동 중임. 이 중 25%는 미국계 기업이며, 유럽은 독일, 네덜란드 순으로 많은 회사들이 혁신 클러스터에 진입하였음
- 프랑스 전 국토에 걸쳐 분포해 있는 71개의 거점은 모두 동등한 레벨은 아님. 시장경쟁력과 목표시장의 영역, 그리고 기술혁신에 필요한 인적·물적 규모 및 질에 따라 글로벌 클러스터, 글로벌 클러스터 후보, 그리고 국내 클러스터 등 세 가지 범주로 운영되고 있음

<프랑스 혁신 클러스터 유형>

구 분	분 야	개 수
글로벌 클러스터 Pôle de compétitivité mondiaux	○ 글로벌 시장에서 중심기능 수행 분야	7
글로벌 클러스터 후보 Pôle de compétitivité à vocation mondiale	○ 글로벌 시장에서 중심기능 수행 부족 분야	11
국내 클러스터 Pôle de compétitivité Nationaux	○ 국내 시장대비 경쟁력 보유 분야	54

□ 기업 입주 요건 및 인센티브 지급 개요

○ 기업 입주 요건

- 물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입주해야만 혁신 클러스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별도의 입주 요건은 파악되지 않음
- 혁신 클러스터에 참여, 해당 클러스터가 승인한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은 R&D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 인센티브 개요

- 프랑스 국립연구원은 공공부문 연구소와 민간기업의 협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혁신 SME에 대한 지원을 주업무로 맡고 있는 혁신청(OSEO)과 기업 경쟁력 펀드는 혁신 클러스터가 진행하는 R&D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또한 R&D에 대한 지원은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유럽연합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을 통해서도 이루어짐
- 평균적으로 R&D 협력 프로젝트는 170만 유로의 예산과 15인의 연구원 또는 1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연구 엔지니어가 관련됨. 2008년 975개의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기관에서 총 8억 5백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음
- 프로젝트를 혁신 클러스터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실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한도가 25%에서 40%로 증가함. 지정된 R&D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3년에 걸쳐 회사 당 최대 200,000 유로의 면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음
-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IS) 납부 대상인 기업의 경우 36개월에 걸쳐 회사가 신고한 결손금 이월 공제 후 수익과 자본이득의 완전 면세와 24개월간 50% 면제. 최대 5년간의 회사 수입을 기준으로 연간 납부하는 세금인 법인세 추계액 납부(impôt forfaitaire annuel: IFA)가 완전 면제됨.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경제기여세(CET)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됨

## ○ 인센티브 지급 프로세스

- 정부는 클러스터를 지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하지만, R&D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는 클러스터에서 선정, 정부가 승인하는 형식을 가짐

- 매년 클러스터 사무국은 기간을 두고, 기업 및 연구소 주도의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 제안을 받음
-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보조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 앵커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정책

- 별도로 운영되는 정책은 없음

### 3. 독일

#### □ 산업 클러스터 입주 지원 정책

- 산업 클러스터 설립 목적은 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네트워크 확장이며,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목표가 아님
- 기업 입주 요건 및 인센티브 지급
  - 해당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 입주 요건
    - Hessen주 Cluster Management를 담당하는 TTN-Hessen 기관에 따르면 입지 희망하는 기업의 산업 분류가 산업 클러스터 구성 concept에 적합해야 함
    - 또한 당 지역 및 인근지역에 기업 거주만 주요 해당
  - 클러스터 설립 경우에 consortium에 대한 지원 정책은 독일 정부쪽에 존재 하지만, 해당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히 없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유치 경우 일반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적용됨

구분	주요정책내용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기업의 실효세율은 29.83% 임</li> <li>- 주별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다름 (최저 22.83%)</li> <li>- 독일은 이중 과세 협정에 관해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함</li> </ul>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투자 초기 단계에 (가장 큰 자본이 요구되는 시기) 직접 보조금을 제공함 (주별로, 산업 군 별로 보조 비율이 다름. 최대 대기업에 30%, 중간 규모 기업에 40%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 50% 까지 지원함</li> <li>-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Anhalt, Sachsen, Thuringen 주 - 전 동독지역에서)</li> <li>- 사업이 시작되면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됨 (예를 들면 노동시장과 관련해 임금 보조금 및 노동인력 훈련 프로그램 등이 제공됨)</li> <li>- 이 외에도 R&amp;D 프로젝트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있음</li> </ul>

구분	주요정책내용
중점유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li> <li>- 신재생 에너지</li> <li>-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li> </ul>

□ 앵커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정책

- 독일 cluster management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 VDI/VDE Innovation und Technik GmbH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앵커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정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

## 4. 영국

### □ 영국 산업클러스터 현황

- 영국내 산업클러스터(Enterprise Zone)는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등 주요 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에도 일부가 산재
- 각 Zone마다 역점 산업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업별 입주조건 및 인센티브 지급 요건은 Zone별로 상이함

<England Enterprise Zone 현황>

구분	역점 산업군	홈페이지
Alconbury Airfield	IT, BT, pharmaceuticals, advanced manufacturing, creative industries, engineering, processing	<a href="http://www.alconburyairfield.co.uk">www.alconburyairfield.co.uk</a>
Birmingham City Centre	Business services, financial services, IT, creative industries, digital technologies	<a href="http://birmingham.gov.uk/ez">http://birmingham.gov.uk/ez</a>
Black County (Wolverhampton North and Darlaston)	Aerospace, automotive, advanced manufacturing, business services, advanced engineering, green technologies	<a href="http://www.the-blackcountry.com/default.asp?PageID=379&amp;n=Enterprise+Zone">www.the-blackcountry.com/default.asp?PageID=379&amp;n=Enterprise+Zone</a>
Bristol Temple Quarter	Creative industries, green technologies, food processing	<a href="http://www.investinbristol.com/temple-quarter.php">www.investinbristol.com/temple-quarter.php</a>
Discovery Park, Sandwich	Life sciences, pharmaceuticals, BT	<a href="http://www.discovery-park.co.uk">www.discovery-park.co.uk</a>
Enterprise West Essex	Medical technologies, IT, advanced manufacturing	<a href="http://www.westsexalliance.org">www.westsexalliance.org</a>
Green Port Corridor (Grimsby)	Renewable energy, green technologies, marine industries	<a href="http://humberlep.org/enterprise-zone">http://humberlep.org/enterprise-zone</a>
Hereford Enterprise Zone	Defence, security, advanced engineering, green technologies, food processing	<a href="http://www.marcheslep.org.uk">www.marcheslep.org.uk</a>
Humber Estuary Renewable Energy Super Cluster	Renewable energy, green technologies, marine industries	<a href="http://humberlep.org/enterprise-zone">http://humberlep.org/enterprise-zone</a>
Lancashire Advanced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Enterprise Zone	Aerospace, advanced engineering, advanced manufacturing	<a href="http://www.lancashirelep.co.uk">www.lancashirelep.co.uk</a>
Lower Aire Valley	Healthcare, medical technologies, low-carbon manufacturing, renewable energy, logistics, waste management	<a href="http://airevalleyleeds.com/ez">http://airevalleyleeds.com/ez</a>

구분	역점 산업군	홈페이지
Manchester Airport and Medipark	Advanced manufacturing, healthcare, BT, logistics	www.manchesterairportez.co.uk
Mersey Waters	Business services and leisure	www.peelwaters.co.uk
MIRA Technology Park	Research and development – including automotive, aerospace, transport, defence, manufacturing	www.miratechnologypark.com
The Modern Manufacturing and Technology Growth Area	Advanced manufacturing, creative industries, digital, technologies, logistics, low-carbon technologies, healthcare	www.sheffieldenterprisezone.co.uk
New Anglia Enterprise Zone (Great Yarmouth and Lowestoft)	Energy industries, logistics,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marine industries.	www.newanglia.co.uk/Page.aspx?ID=158
Newquay Aerohub	Aerospace	http://newquaycornwallairport.com/aerohub
Nottingham	Healthcare, beauty, IT, green technologies, life sciences	www.d2n2lep.org
Northampton Waterside	Green technologies, advanced technologies, precision engineering, sustainable construction, pharmaceuticals	www.northamptonez.co.uk
North East River Tyne and Nissan site	Energy industries, green technologies, marine industries, advanced engineering, automotive, advanced manufacturing	http://enterprisezones.communities.gov.uk/enterprise-zone-finder/river-tyne-north-bank-and-a19-corridor-enterprise-zone/
Royal Docks	Energy industries, bio-sciences, green technologies, advanced technologies, stem-cell technologies	www.royaldockslondon.com
Science Vale UK	Green technologies advanced engineering, space sciences, medical technologies, bio-technologies, cryogenics	www.sciencevale.com

구분	역점 산업군	홈페이지
Sci-Tech Daresbury	Advanced engineering, advanced manufacturing, medical technologies, precision engineering, digital technologies, green technologies	www.sci-techdaresbury.com
Solent Enterprise Zone	Advanced manufacturing, green technologies, aerospace, marine industries, defence, business services	http://solentez.co.uk/site/hca/home
Tees Valley Enterprise Zone	Advanced manufacturing, advanced engineering, renewable energy, chemicals, healthcare, IT	www.teesvalleyunlimited

<Wales Enterprise Zone 현황>

구분	역점 산업군	홈페이지
Anglesey	Renewable energy	www.enterprisezones.wales.gov.uk/zones/enterprise-island
Cardiff	Financial and professional services	www.enterprisezones.wales.gov.uk/zones/cardiff
Cardiff Airport and St Athan	Aerospace	www.enterprisezones.wales.gov.uk/zones/st-athan-cardiff-airport
Deeside	Advanced manufacturing	www.enterprisezones.wales.gov.uk/zones/deeside
Ebbw Vale	High technology manufacturing	www.enterprisezones.wales.gov.uk/zones/ebbw-vale
Haven Waterway - Pembrokeshire	Renewable energy	www.enterprisezones.wales.gov.uk/zones/haven-waterway

<Scotland Enterprise Zone 현황>

구분	역점 산업군	홈페이지
Arnish - Western Isles	Low carbon/renewables	<a href="http://www.hie.co.uk/highlands-and-islands/regionally-significant-investments/archive/arnish.html">www.hie.co.uk/highlands-and-islands/regionally-significant-investments/archive/arnish.html</a>
Biocampus - Midlothian	Life sciences	<a href="http://www.edinburghsciencetriangle.com/research/science_parks/biocampus.aspx">www.edinburghsciencetriangle.com/research/science_parks/biocampus.aspx</a>
BioQuarter - Edinburgh	Life sciences	<a href="http://www.sdi.co.uk/sectors/life-sciences/bioquarter.aspx">www.sdi.co.uk/sectors/life-sciences/bioquarter.aspx</a>
Creative Clyde - Glasgow	Creative industries	<a href="http://www.creativeclyde.com/office-space/creative-clyde-enterprise-area">www.creativeclyde.com/office-space/creative-clyde-enterprise-area</a>
Dundee Port - Dundee	Low carbon/renewables	<a href="http://www.dundeerenewables.com">www.dundeerenewables.com</a>
Forres Enterprise Park – Moray	Life sciences	<a href="http://www.hie.co.uk/highlands-and-islands/regionally-significant-investments/archive/enterprise-park-forres.html">www.hie.co.uk/highlands-and-islands/regionally-significant-investments/archive/enterprise-park-forres.html</a>
Hatston - Orkney	Low carbon/renewables	<a href="http://www.orkneymarinerenewables.com/infrastructure.asp">www.orkneymarinerenewables.com/infrastructure.asp</a>
Inverness Campus – Highland	Life sciences	<a href="http://www.invernesscampus.co.uk">www.invernesscampus.co.uk</a>
Irvine	Life sciences	<a href="http://www.irvinebay.co.uk/our-changing-bay/48_irvine_innovation_and_industry">www.irvinebay.co.uk/our-changing-bay/48_irvine_innovation_and_industry</a>
Leith Port - Edinburgh	Low carbon/renewables	<a href="http://www.scotland.gov.uk/Resource/0038/00389032.pdf">www.scotland.gov.uk/Resource/0038/00389032.pdf</a>
Lyness - Orkney	Low carbon/renewables	<a href="http://www.orkneymarinerenewables.com/infrastructure.asp">www.orkneymarinerenewables.com/infrastructure.asp</a>
Nigg - Highland	Low carbon/renewables	<a href="http://www.gegroup.com/nigg/nigg-background-information.htm">www.gegroup.com/nigg/nigg-background-information.htm</a>
Prestwick International Aerospace Park	Aerospace	<a href="http://www.scottish-enterprise.com/your-sector/aerospace-defence-and-marine/infrastructure.aspx">www.scottish-enterprise.com/your-sector/aerospace-defence-and-marine/infrastructure.aspx</a>
Scrabster - Highland	Low carbon/renewables	<a href="http://www.scrabster.co.uk/services/renewables.asp">www.scrabster.co.uk/services/renewables.asp</a>

□ 산업클러스터 입주 지원 정책

○ 산업클러스터별 기업 입주 조건 및 인센티브 지급 조건

- 기업 입주 조건

- Enterprise Zone별 사업담당자(Enterprise Zone Coordinator)와 접촉, 입주 신청심사를 위한 사전 프로젝트 평가 양식(Preliminary Project Assessment(PPA)) 제출
- 해당 사업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입주희망 기업이 해당 Enterprise Zone 사업규정에 부합한지 여부 심사 후 최종 선정

- 인센티브 지급 조건

-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할인(최고 5년, 275,000파운드)
- Local Development Orders 등을 통해 입주절차 간소화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설치 등
- Enterprise Zone별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상이

- 참고사항

- 일부 England Enterprise Zone에서는 플랜트 기계 관련 입주 첫해 100% 자본금 지원, 저가 임차 인큐베이터 단지 제공, 개발 자금 지원 등 추가 혜택 제공

□ 앵커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정책

- 영국 투자청에 따르면 영국 내 앵커 기업의 Enterprise Zone 입주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없음

□ 해외로부터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성장 성공 사례

- 프랑스 Airbus社 유치 성공 사례

- 프랑스 Airbus社는 2011년 10월 13일, 영국 Broughton 지역의 Deeside Enterprise Zone에 자사 최초의 전면 합성 날개체 제조 공장(46,000㎡ 규모)을 설립

- 웨일즈 지자체는 동 투자유치를 통해 650명에 달하는 고급 기술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4억 파운드에 달하는 동사의 제조 시설 중 2,900만 파운드를 지원
- 공장시설 외 기반시설 개선 등을 위한 Airbus社의 투자 금액은 20억 파운드에 이르며, 이를 통해 6,600명의 일자리를 창출
- Airbus社는 동 Zone에 2013년 출시 예정인 A350 XWB 날개 조립공장을 추가 설립했으며,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는 Airbus Composites Training and Development Centre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 소재 Deeside College, Glyndwr University 등과 산학협력사업도 추진 중



## 5. 네덜란드

- \* 네덜란드의 경우 산업 클러스터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정책이 산업클러스터에도 적용되며, 클러스터 별도의 유치정책을 보유한 경우는 아래의 사례 참고 요망
- \* 네덜란드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상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음
- \* 또한 네덜란드 투자유치청(NFIA) 확인결과 앵커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없음

### □ 네덜란드의 화학산업 클러스터 Chemelot

#### ○ 클러스터 개요

- 네덜란드 남부의 Geleen에 위치한 800헥타르의 산업 & 연구단지로서 약 8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음
- 유럽에서 가장 큰 재료과학&생명과학 단지 중의 하나로 연간 250개 이상의 특허를 단지 내 기업/연구기관들이 취득
- 글로벌 기업들이 중소기업, 신생기업, 연구소 등과 실험공간을 공유하고 공동개발업무를 수행하며 고성능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주요 분야 : performance materials, biomedical materials, biotechnology /biosynthesis, biobased chemicals and materials, and R&D enabling technologies.
- 네덜란드의 정밀화학기업인 DSM이 산업단지의 운영과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Limburg 지방청, Maastricht 대학, DSM이 각각 1/3씩 투자한 Chemelot Campus Consortium이 공식적인 운영기관
- Chemelot Campus에는 개방적인 연구 분위기를 가지고 다른 기업 및 연구기관들에게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입주시키고 있음. (적어도 입주기업 중 3개사 이상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입주대상 기업으로 삼음)

- 대표기업: DSM, SABIC, Sekisui, Interteck 등

○ 클러스터의 인센티브

- 환경허가 간소화 :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정부로부터 복잡한 환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Chemelot Site Permit B.V로부터 허가 획득 가능
- 금융지원
  - Imburg Ventures: DSM와 Limburg 투자유치기관 LIOF이 조성한 15백만유로 규모의 벤처펀드로 Chemelot Campus의 프로젝트 펀딩. 투자 기업당 최소 25만유로에서 150만 유로까지 투자 가능.
  - Chemelot Foundation Fund (Limburg Venture II) : 신규설립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 Limburg 지방청과 Limburg 투자유치기관 LIOF, Rabobank가 5천만 유로 조성. 프로젝트별 최소 250만 유로에서 8백만 유로까지 펀딩 가능
-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혁신 달성

□ Chemelot 입주기업 Sekisui S-Lec

○ 기업개요

- Sekisui는 50년 역사를 가진 일본의 고성능 플라스틱 제조회사
- 동 회사는 2007년 1월 Chemelot 산업단지에 PVB필름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인 수지(Resin)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
- 2009년 3월 Sekisui는 라미네이트 글래스용 interlayer film 원재료 생산 설비를 증설

- interlayer film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 새로 판매되는 6대의 자동차 중 1대에 Sekisui의 필름이 사용됨. 세계시장의 42%를 점유. 필름의 기능성이 향상되며 수요가 늘어나자 공장 증설

○ 클러스터 성장 기여 매커니즘

- 초기 투자 이후 interlayer film의 기능 개선, 수요 증가로 인한 공장 증설. Sekisui사는 공장증설에 85백만유로 추가 투자
- PVB(Polyvinyl butyral)필름 분야 공동 연구(Open Innovation) 주도 및 연구결과의 생산 및 상용화 도모

○ 유치 성공 핵심요인

- 입주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폴리머 생산 인프라 구비
- 단지 내의 Chemelot Innovation and Learning Labs, DSM, Intertek Polychemlab, Zuydlab Chemelot(Zuyd Hogeschool) 등 연구분석기관에서 제공하는 첨단 분석 지원
- 원재료로 쓰이는 DSM 제품을 단지내에서 조달함으로써 가치사슬 최적화 가능
- 유럽에 공급되는 제품을 일본이 아닌 네덜란드에서 유통하여 물류 효율화

## 6. 스웨덴

### □ 스웨덴 산업클러스터 개요

- 2000년대 초부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스웨덴의 여러 지역에서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클러스터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 및 학계간의 전략적 협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음
- 클러스터 운영의 장점으로 동종 산업 혹은 서로 다른 산업이 함께 모여 있으므로 생기는 정보교환, 산업 발전 등의 시너지 효과창출을 위해 클러스터가 꾸준히 개발되어 왔으며 정부적 차원에서도 클러스터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중에 있음
- 스웨덴에서의 클러스터 개발은 국가 지역발전에 있어 핵심부문으로서, 현재까지 스웨덴에는 3개 국가 클러스터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음
  - 스웨덴기술혁신청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의 *Vinnväxtprogram* (2001년 시작) : 국제 연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간 경쟁형태의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되는 지역의 경우 10년간 최대 10백만 SEK/년 (한화 약 16억원)의 지원금을 받음
  - 스웨덴 경제 지역개발청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前 NUTEK, 現 Tillväxtverket), VINNOVA 및 Invest Sweden의 *Visanu* (2002-2005년) : 클러스터 및 혁신시스템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스웨덴의 국제 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 스웨덴 정부는 동 프로그램에 총 70백만 SEK (한화 약 116억원)를 투자
  - 스웨덴 경제 지역개발청의 *Regional Cluster programme* (2005-2010년) : 지역 발전 및 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함

## □ 산업클러스터 입주 지원정책

- 스웨덴의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유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로서는 스웨덴에는 해외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특정 클러스터나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하지 않고자 함
  - 스웨덴에는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국가투자유치기관인 Invest Sweden과 17개의 지역투자유치기관이 있음.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정부산하기관)에서 산업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클러스터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의 재정적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국가/지역 투자유치기관에서는 기업들이 스웨덴에서의 비즈니스 정착에 필요한 정보검색, 비즈니스 지역 선정, 방문상담, 설립, 후속 조치 등 일련의 서비스를 지원함
  - 클러스터 입주시 관련 지역 부동산 업체를 통해 자유경쟁시장 원칙에 입각하여 임대료 등 입주 금액이 책정됨
- 
- 스웨덴의 경우 산업클러스터 개발/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부문으로서 지역개발정책과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려움. 실제로 관리운영기관이 해당 시(市) 또는 지역개발기관 (예, Stockholm Business Region)임.
  - 특정 산업클러스터에만 제한하지 않는 일부 저개발 지역 (낙후된 북부지역) 투자 관련 인센티브제도 시행
  - 예) Reginal Investment Grant : 스웨덴경제지역개발청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지역 비즈니스 지원으로서 건물, 기계,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산업부문 투자에 제공되는 지원금. 동 지원금은 스웨덴의 A (우측그림: 초록색) 및 B (우측그림: 연두색)지역 (Norrland, Darlarna 일부, Värmland, Örebro, Västmanland, Kalmar 및 Västra Götaland 지역)에 투자하는 일부 산업에만 해당됨

<지역개발 보조금 지원한도>



투자분야	보조금 지원 최대한도(총투자비용 대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Machinery, equipment, buildings etc and intangible investments (e.g. patents and license)	A지역: 35% B지역: 30%	A지역: 25% B지역: 20%	A지역: 15% B지역: 10%
Premises to let	A지역: 25%	B지역 :20%	0%
Consulting services, participation in certain fairs and exhibitions	50%	50%	0%
Special education	40%	40%	30%
Precompetitive development	40%	40%	0%

\* 종업원수에 따라 중소기업(50명 미만), 중견기업(50-250명), 대기업(251명이상) 분류  
 자료원)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2010

- 지역균형발전/개발정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클러스터에 따라 혁신기업/창업 육성 및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곳도 있음
- 예) 시스타지역의 ICT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기관 Electrum Foundation는

자회사 중의 하나인 STING (Stockholm Innovation & Growth)을 두어  
채정, 투자, 비즈니스 코치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돕고  
있음

- 그 밖에도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산하기관인 스웨덴기술혁신청 (VINNOVA) 및 스웨덴경제지역개발청 (Tillväxtverket)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대부분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 혹은, 특정 산업 혹은 혁신기업/중소기업 지원에 한함

#### □ 앵커기업 특별지원정책

- 스웨덴의 산업클러스터 형성과정 및 현황을 살펴볼 때, 클러스터 발전은 지역발전을 목표로 형성되기 시작된 것으로 해당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앵커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 스웨덴의 대표 산업클러스터인 시스타(Kista) ICT 클러스터의 경우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발전이 앵커기업인 에릭슨이 그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시작, 정부의 앵커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된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음
  - 그 이후 시스타 ICT 클러스터는 에릭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산업클러스터가 발전, 성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시스타 ICT 클러스터 운영기관인 Electrum 재단 이사장에 에릭슨사의 임원이 재직 중)

#### □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성장 성공사례

##### 1) 클러스터 개요: **KISTA Science City**

- 스웨덴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서 유럽 최대의 ICT클러스터임  
<광역 Kistra Science City 기준>
  - 입주기업 : 9,987개사
  - 종업원수 : 72,364명 (ICT 분야는 23,973명)

- IT기업 : 1,168개사 (이중 약 400개사는 Micro 규모의 소기업임)
- 주요입주 대기업 : Ericsson, 삼성전자, IBM, Microsoft, Nokia, Sun  
Microsystem, Intel, Philips, Siemens, Huawei,  
ZTE, LG전자, Adobe 등
- 거주민수 : 114,000명

<Kista Science City-Central Business District 기준>

- 입주기업 : 1,500개사 (약 400개사가 ICT 기업임)
  - 종업원수 : 32,500명 (18,500명이 ICT 업종에 종사)
  - 학생수 : 6,800명 (스웨덴왕립공과대학과 스톡홀름대학교)
  - 연구자 : 1,000명
  - 거주민수 : 45,000명 거주 (100개 언어 사용)
- Kista Science City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함께 구성된 종합 IT 클러스터로, 스톡홀름 지역구 3곳(Kista, Rinkeby, Spånga-Tensta)과 인근 지역구 3곳(Sollentuna, Sundbyberg, Järfälla)이 함께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클러스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공동 분담하고 있음

○ 주요기관

- Electurm Foundation : Kista Science City의 지속성장을 위한 비영리 재단으로서 ICT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산업체들 간의 협력을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산하에 Kista Science City AB와 Stockholm Innovations & Growth AB를 두고 있음
- Kista Science City AB ([www.kista.com](http://www.kista.com)) : Electrum Foundation의 자회사로서 Kista Science City의 운영을 전담하는 비영리기관으로 ICT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국내외 각종 기업들의 유치활동과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맡고 있음 (스톡홀름 시청으로부터 예산 지원받음)

- STING (Stockholm Innovation & Growth) : Electrum Foundation의 자회사로서 주로 혁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Start-up 기업 (인큐베이터)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기까지 도움을 주는 비영리 기관임
-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KTH 및 스톡홀름대학교 : 스톡홀름 지역의 ICT 관련 학과를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위치시킴으로서 학교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곧바로 산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그 밖에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에는 각종 연구센터 및 기관을 비롯하여 ICT 분야 세계선도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음

#### ○ 발전과정

-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시스타 지역은 주요 IT 기업의 입주와 함께 産-學-市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스웨덴 첨단 IT산업의 중심메카로 변모하는데 성공하였음
- 1976년 Ericsson이 시스타에 앵커기업으로 정착하고 IBM, Nokia, Microsoft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스타 지역으로 입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ICT 기업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유럽 최대의 IT클러스터로 부상하게 됨
- KISTA Science City는 솔나 (Solna), 예르펠라 (Järfälla), 솔렌투나 (Sollentuna), 슌드뷔베리 (Sundbyberg) 및 스톡홀름 (Stockholm)의 다섯 개 市를 포함하고 있어 각 市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발전/운영되고 있음
- 2010년도 2분기 대비 2011년도 2분기에 해외기업의 수는 152에서 178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업 수는 연간 4%, 총 고용인수는 3%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클러스터가 성장하고 있음
- 2011년 공원조성 등에 이어 2012년도에는 시스타 주거 타워를 건설을 시작 한 바 있으며, 2013년~2017년까지도 추가 주거시설을 비롯 동지역의 주

변지역 대중교통, 사무실 건설 등 지속적인 개발/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음

## 2) 앵커기업 개요: Ericsson 社

### ○ 기업개요

- 소재지 : 스웨덴 스톡홀름 Kista (시스타)
  - 설립년도 : 1876년
  - 현 President and CEO : Hans Vestberg
  - 매출액 : 349억불 (2011년)  
Fortune지 Global 500대 기업순위 339위
  - 종업원 : 전 세계 180여 개국 108,095명 (2012. 6월 기준)
  - 업종 : 통신서비스업
  - 주요품목 : 통신장비 및 통신 인프라, 멀티미디어 솔루션 등
  - 전 세계 모바일 트래픽의 40%이상이 Ericsson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있다고 함.
  - 30,000개 특허보유, R&D 부문 투자 50억 USD 상당 및 R&D인력 22,000명 보유
- ### ○ 시스타 ICT 클러스터와 앵커기업
- 에릭슨이 시스타의 앵커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지난 75년 에릭슨이 스톡홀름시와 협력하여 시스타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무선통신 사업본부와 연구소를 세우면서 시작되었음

- 에릭슨이 앵커기업으로서 시스타 클러스터 형성의 시발점이었다면 IBM은 서버앵커 기업으로서 클러스터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음.
- IBM은 세계적으로 역사 100년을 자랑하는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IT 기업. 당시 IBM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사무실 확장을 위해 부지를 찾아 헤매던 중 거주민이 거의 없는 시스타 지역을 발견,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78년에 입주함
- 에릭슨, IBM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들어서면서부터 자연스레 국내외 파트너 기업들이 동 지역에 들어서고, 크고 작은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클러스터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함. 특히 유관기관 및 유사 업종 간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여 발전에 가속도가 붙음
- 88년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캠퍼스가 세워지면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産-學-市 협력의 밑바탕이 갖추어지기 시작함.
- 학교/연구실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곧바로 산업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 특히 에릭슨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실습 등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고, 우수인력 채용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 창출

#### □ 성공핵심요인

- 시스타 ICT 클러스터의 성공핵심요인은 시스타의 성장 모델인 일명 시스타모델: Triple-Helix를 들 수 있음. 즉, 産-學-市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스톡홀름시-에릭슨사-왕립공과대학 및 스톡홀름대학교 간에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선도 연구 분야에 대한 교육과 과학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ICT 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음.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높은 혁신과 이윤을 꾀하는 것이 Triple-Helix의 목적임
- 이러한 Triple-Helix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Electrum Foundation 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동 재단의 이사회에는 에릭슨, IBM 등 주요기업 인사를 비롯하여 스톡홀름시장, Stockholm Business Region의 CEO 등 공공기관, KTH 및 스톡홀름대학학장 등 학계인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회사-학교 간 협력이 매우 용이함
- 또한 일렉트럼 재단은 유기적인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진 인프라, 주거시설, 일거리, 교육시설, 서비스, 교역, 문화 및 레저 등 여러 분야에서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음
- 두 번째 성공핵심요인은 인큐베이팅 시스템. 생산성과 이익창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창업 아이디어를 시스타 협력지원센터에서 심사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Electrum Foundation의 자회사인 STING (Stockholm Innovation & Growth)가 Start-up 기업(인큐베이터)들에 대해 벤처캐피털 펀드인 STING Capital 및 투자 네트워크 STING Business Angel을 통해 초기 자본문제에 재정적 지원을 주고 있음
  - STING은 현재 매년 140~180여개 프로젝트/회사들 (주로 ICT, medtech, 클린테크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10~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지원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원한 업체 중약 30여개 업체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음
  - Start up, Business Lab, Business Accelerator, Go Global 및 Go Global Medtech의 5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젝트/기업의 주력 비즈니스 혹은 특성에 맞추어 적용됨

## 7. 일본

### (1) 도쿄

#### □ 일본 산업클러스터 현황

##### 1) 산업클러스터의 현황

###### ○ 클러스터 육성의 흐름

-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산업클러스터 계획」 과 문부과학성이 실시해 온 「지적클러스터 창성사업」 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개념은 산업계에서 정착되어 있음
- 경산성의 산업클러스터 계획은 2009년에 종료되었으나, 이후 계획을 「전국 이노베이션 추진기관 네트워크」 (이노베이션넷)에서 인계받아 산업집적과 이노베이션·네트워크 형성 및 추진을 계속적으로 중점과제로 삼고 있음
- '11년 12월, 「신성장전략」 의 기동인 「종합특별구역(특구)」 중 「국제 전략 종합특구」 를 7개 지역에 지정한다고 발표되었으며, 「산업클러스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특구도 있음
  - 「아시아NO.1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 형성 특구」 (愛知縣, 名古屋市, 岐阜縣 등)

##### 2) 클러스터 정책의 변화

###### ○ 클러스터 정책의 2분류화

- 지역주도형 클러스터
  -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클러스터 외에,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 산업집적활성화법(기업입지 촉진법) 등의 시책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 선도적 클러스터

- 첨단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형성해야하는 클러스터는 국가가 주도함

3) 클러스터 활동의 보급 및 강화

○ 클러스터의 정리 및 활용

-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産學연계 클러스터를 정리하고 각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산업진흥책에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기관 등의 관계자에 전파

○ 지역 간 제휴 추진

- 클러스터 활동의 효율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징이나 장점을 활용한 국내외 지역 간 제휴를 촉진, 강화를 도모

□ 산업 클러스터 활동

1) 경제산업성 산업 클러스터 추진 내용

○ 시기별 산업 클러스터 추진 정책

- (제1기) 2001~2005년 : 클러스터 수립기

- 국가가 중심이 되어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를 20개 형성

- (제2기) 2006~2010년 : 클러스터 성장기

-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업 전개, 벤처 창출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 프로젝트 형성

- (제3기) 2011~2020년 : 클러스터 자율적 발전기
  - 네트워크 형성 및 구체적인 사업전개 추진을 통하여, 산업클러스터 활동의 재정 면에서 자립하고 산업클러스터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

○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 프로젝트 (관동경제산업국 관할)

- 수도권서부 네트워크 (TAMA)
- 중앙자동차도로연선 네트워크
- TX연선(도카츠, 가와구치, 츠쿠바) 네트워크
- 삼원남신 네트워크
- 수도권북부 네트워크
- 게이힌(京浜)지역 네트워크

○ 주요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 바이오벤처 육성 프로젝트
  - 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 1도 10현
  -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니가타, 나가노, 야마나시, 시즈오카
  - 대상분야 : 의약, 식품, 환경 등의 바이오 관련 산업
- 정보벤처 육성 프로젝트
  - 대상지역 : 수도권 1도 3현
  -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 대상업종 : IT 관련 산업

- 정보 네트워크, 콘텐츠, 전자 디바이스 관련

## 2) 문부과학성 산업 클러스터 추진 내용

### ○ 지역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프로그램 (구 : 知的클러스터)

- 문부과학성에서 추진해 온 「知的클러스터 사업」 과 「도시지역 産學제휴 촉진사업」, 「産學官제휴 전략전개사업」 을 2010년도부터 《이노베이션 시스템정비사업》로서 통합, 추진

### ○ 지역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보조내용

#### - 연구자 집적

- 대상기관 : 대학 · 연구기관
- 내 용 : 연구자의 인건비 지원 (설립시 설비 및 사업설비 포함)

#### -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 실시

- 대상기관 : 종합조정기관 또는 대학 · 연구기관
- 내 용 : 연구자의 인건비 (사업설비)

#### - 知的 네트워크 구축

- 대상기관 : 종합조정기관
- 내 용 : 인건비, 활동비, 비품, 설비 등 (코디네이터, 프로젝트 디렉터 등)

#### - 연구 설비 · 기기 등의 공용화 지원

- 대상기관 : 대학 · 연구기관 중 연구 설비기기 등을 신규로 외부에 개방하는 기관
- 내 용 : 인건비 및 활동경비(기술지원임원)

<지역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지원실시 지역 (2011년도)>

지정구분	지역	내용
국제경쟁력 강화지역	홋카이도 대학 리서치&비즈니스 파크	건강과학/의료
	야마가타 유기EL 이노베이션 전략추진지역	OLED
	후쿠시마 차세대의료산업집적 클러스터	의료기기
	차세대산업 핵심 슈퍼 모듈 공급 거점(나가노 전역)	연구
	아이치「지식거점」나노텍 이노베이션 전략추진지역	나노기술
	하마마츠 라이프 포토닉스 이노베이션	光전자기술
	게이한나 學研도시 헬스케어 개발지역	헬스케어
	후쿠오카 차세대사회 시스템 창출 추진처	신성장산업
	구마모토 유기 일렉트로닉스 제휴 지역	OLED

□ 현행 산업 클러스터 개요

1) 홋카이도 클러스터

○ 홋카이도 IT·바이오산업 클러스터

- 홋카이도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삿포로 벨리」는 IT기업 집적이 활발한 IT분야와 대학 연구시설 등 생명과학 분야 연구시설의 집적성이 높은 바이오분야를 융합한 클러스터를 형성

<IT·바이오 클러스터 추진 성과>

구분	참가 기업수	매출액	고용인원수
IT	357개사(1.4배)	4,125억엔(1.7배)	19,950명(1.3배)
바이오	123개사(2.2배)	501억엔(4.0배)	1,497명(2.9배)

\*과거 10년간 프로젝트 지원 성과

○ 각 추진 전략별 2020년도 목표치

- 홋카이도 IT AGILE 전략
  - 매출액 : 6,000억엔
  - 고용인원 : 25,000명
  - 신규 사업 매출액 : 1,000억엔
  - 해외전개 기업수 : 100개사
  - 농림수산업·관광분야 매출비율: 10%
  - 글로벌 IT벤처기업 창출 : 10개사
  
- 홋카이도 바이오 이노베이션 전략
  - 매출액 : 1,500억엔
  - 고용인원 : 2,000명
  - 해외전개 기업수 : 80개사
  - 국내외대기업 라이선스 제공 : 10건 이상
  - 진출 기업수(연구소·사업소) : 10개사 이상

2)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특구

○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특구」의 개요

- 목 표 : 아시아 최대·최강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 내 용
  - 관세 Free Zone화로 인한 수속의 간소화
  - 기계, 건물 취득시 취득가격의 일부를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 항공기 관련 중소기업이 행하는 공동수주 시스템 구축 및 공동 양산 체제를 위한 시설 정비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
  
- 지 역 : 아이치현, 기후현 내 항공기 개발 제조거점, 연구 인재육성 거점 등

□ 국제전략 종합특구

1) 국제전략 종합특구 설치

○ 국제전략 종합특구 추진 내용

- 일본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만한 산업 및 외국 기업 등의 집적을 촉진 시키기 위한 전략 특별 구역을 설치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구적인 도전에 대한 규제외 특별조치, 세제·재정·금융상의 자원조치를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

<국제전략 종합특구>

지정번호	지자체	국제전략 종합특별구역
국제1	홋카이도(삿포로,하코다테,오비히로, 에베츠,토카치 등)	홋카이도 푸드 콤플렉스 국제전략 종합특구
국제2	이바라키현 (츠크바)	츠크바 국제전략종합특구 (츠크바의 과학기술집적을 활용한 라이프/그린 이노베이션 추진)
국제3	도쿄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국제4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케이힌 임해부 라이프 이노베이션 국제전략 종합특구
국제5	기후현, 아이치현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형성 특구
국제6	교토, 오사카	간사이 이노베이션 국제전략 종합특구
국제7	후쿠오카 (기타큐슈 및 후쿠오카)	그린 아시아 국제전략 종합특구

## 2)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 ○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의 목적

- 도쿄에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글로벌기업의 아시아 본부 및 연구·개발 거점을 유치하여 민간투자를 유발
- 유치한 외국기업과 도쿄 및 일본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도쿄로부터 일본 전국으로 경제효과를 파급

### ○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의 추진 내용

- 유치목표 : 아시아 지역 업무 총괄거점 및 연구개발 거점을 5년간 50개사 이상 유치, 이 외 외국기업은 5년간 500사 이상 유치
- 유치업종 : 도쿄의 성장촉진에 공헌하는 기업
  - 정보통신, 의료·화학, 전자·정밀기계, 항공기 관련, 금융·증권, 콘텐츠·크리에이티브 등
- 특구지역 : 도쿄 중심부, 임해지역, 신주쿠 주변, 시부야역 주변, 시나가와역·타마치역 지역, 하네다공항 철거지

### ○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의 기업유치 전략

- 유치·비즈니스 교류
  - 유치활동·MICE 개최를 통해 유치대상 기업 발굴
- 비즈니스 지원
  - 비즈니스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중소기업과의 매칭 촉진
  - 지방세(법인세)의 전액 면제, 입국·재입국 심사의 완화
  - 외국법 사무 변호사의 확대

- 생활환경 정비
  - 모국어로 학습 가능한 학교를 정비, EPA 간호사를 활용한 외국인 대상 베이비시터 확보
  - 교육과정 특례 학교 지정의 완화
  
- BCP(business continuity plan)를 확보한 비즈니스 환경정비
  - 선진적 비즈니스 지원 기능, 높은 방재 대응력, 에너지 자립화를 유도하는 용적률 완화
  - 특정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

○ 세제감면 조치 내용 (실효 법인세율 인하)

- 외국기업(아시아 총괄·연구개발거점)에 대해 세제우대 조치

현행 실효세율 : 40.7%



특구적용 + 도쿄도 자체 세금감면 : 28.9%



재해복구 증세(법인세액의 10%) 종료 이후,  
20% 중반 수준으로 하락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쟁 가능한 수준에으로 설정 예정)

자료원 : 도쿄도 지사본국 계획조정부 계획조정과(03-5338-2134)

□ 이노베이션 추진 기관 네트워크

1) 이노베이션 추진 기관 네트워크(이노베이션 넷) 설치

○ 이노베이션 넷 설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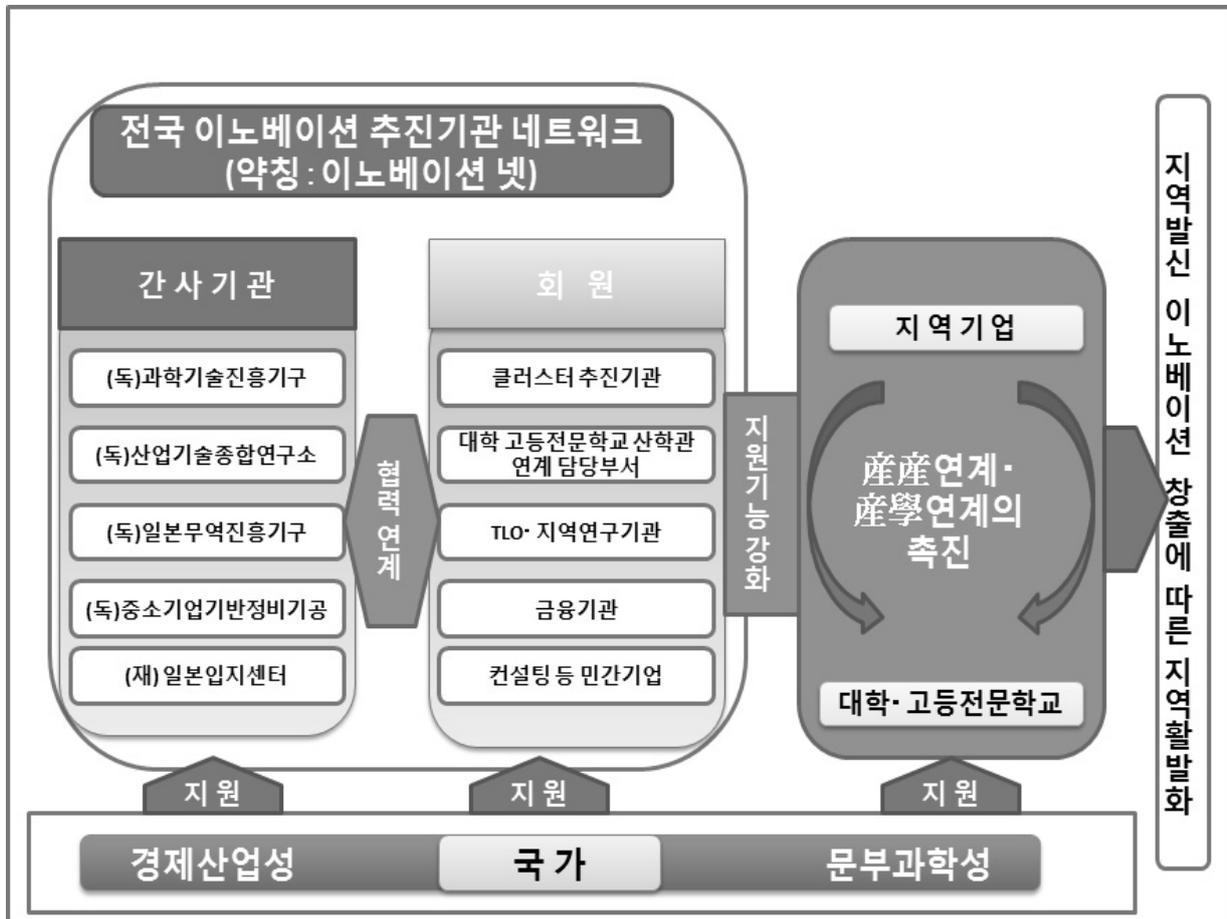
- 문부과학성 계열 및 경제산업성 계열 5개기관 (독)과학기술진흥기구, (독)산업기술종합연구소, (독)일본무역진흥기구, (독)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독)일본입지센터 등이 간사기관이 되어 설립된 네트워크
- 문부과학성의 「知的클러스터 創成사업산업」, 경제산업성의 「클러스터 形成사업」, 농림수산성의 「식료산업클러스터 전개사업」 등 각 부처의 목적이나 특성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된 네트워크를 구축

○ 이노베이션 넷의 추진 업무 및 목적

- 일본각지의 지원기관에서 정보수집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대응 창구를 운영, 지원기관의 협동화를 진척
- 제 3기 자율적 발전기(2011~2020년) 진입 후 일본 각지의 신규 유망발명, 연구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출발 이노베이션」으로써 신규사업 및 신산업으로 확실히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네트워크는 외자유치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의 변동기를 맞이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 이노베이션 추진 기관 네트워크 개요

< 이노베이션 넷 개요 >



\*자료원 : 전국이노베이션 추진기관 네트워크

## (2) 나고야

□ 나고야 관할지내 도카이3현(아이치, 기후, 미에) 산업클러스터

- 자동차, 공작기계 등 세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산업클러스터는 향후, 신산업창출, 첨단기술 실험성과의 비즈니스 전개 등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관념은 존재하지 않음
- 산업클러스터별 기업투자유치 정책은 없으며 지방 또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정책은 존재함

□ 중부경제산업국(경제산업성 중부지방국) 외투기업 유치 정책

- 중부경제산업국은 GREATER NAGOYA INITIATIVE(GNI)라는 이름으로 도쿄, 오사카에 이은 대도시 나고야 반경 100킬로미터 내 도카이지방 3개현(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의 기초자치단체 및 경제단체가 대일 투자유치활동을 추진
- 세계유수기업, 기술, 인재를 유치,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국제적인 사업(정보포함)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함
- 투자유치 대상기업
  -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일 것
  - 본국에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개인 사업은 제외)
  - 홈페이지에서 필요최소한의 회사 개요를 알 수 있을 것
  - 메일주소가 야후 등 프리메일이 아닐 것
  - 일본에 대리점이 있는 경우는 동 대리점의 양해를 얻을 것
  -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비즈니스 일 것
  - 신규성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 지원대상 경비
  - 회사설립에 필요한 제경비
  - 구인광고, 부동산중개료, 시장조사경비 보조
- 지원금액 (1사 당 상한 50만엔)
- 절차
  - 지원희망 외투기업 지원신청서 제출(회사설립전 - GNI센터)
  - 신청내용점검(GNI센터, 제트로나고야 및 진출지지차체담당자)
  - 심사결과 통지

- 회사설립, 등기(외투기업)
- 증거서류제출, 사전심사:일본에서 회사, 지점 등기 이력 등 확인
- 청구서제출(전문가, 중개업자, 조사회사에서 GNI센터로, 동 센터에서 (재단법인 중부과학기술센터)
- 지급절차(재단법인 중부과학기술센터)

### (3) 오사카

#### □ 키타오사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개요

##### ○ 클러스터 개요

- 키타오사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는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등 바이오관련 산업과 오사카대학, 의약기반연구소,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등 뛰어난 연구기관이 지역에 집적된 강점을 살린 클러스터로, 행정과 민간지원단체를 포함시킨 'ALL-OSAKA'정책을 모토로 산학관이 연계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음

##### ○ 클러스터 추진체제

- 2018년에 오사카를 세계 톱클래스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펀드조성과 인재 매칭 등을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 양산 및 지원강화
- 신의약품과 의료기기개발의 원활화 및 신속화, 연구프로젝트의 산업화와 업무제휴 추진 등 'ALL-OSAKA' 맞춘 전략적 대응 지원
- 바이오전략추진회(오사카부 지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책담당팀)와 바이오응원단(제약사 대표, 병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책정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꾸려나갈 실무팀)을 조직하여 경영진과 실무진사이에 의견교환

○ 2012년 클러스터 조성 추진전략

- 펀드운영, 인재의 육성·확보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강화
- 관서 이노베이션 국제전략 종합특구에 따른 규제개혁 등을 활용해 선진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기술개발 등의 원활화 및 신속화를 추구
- 지역 전사적으로 혁신적 연구·개발과 산학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 및 제휴 추진

□ 기타오사카 바이오 클러스터의 강점

○ 최적의 입지

- ·기타오사카 바이오 클러스터는 오사카부 북부의 사이토라이프 사이언스 파크와 오사카 시내의 도쇼마치 그리고 스이타시와 토요나카시의 연구기관을 포함한 반경 20km 지역을 아우르며, 연구개발부터 상품화 그리고 판매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갖추어진 최적의 장소임

< 기타오사카 바이오 클러스터 >



○ 제약기업 집적지

- 오사카시내, 특히 도쇼마치 부근에는 타케다약품, 타나베미츠비시 제약, 시오노기 제약, 대일본스미토모 제약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회사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300사를 넘는 제약기업이 집적해있음

○ 연구기관의 집적지

- 학술면으로 일본의 라이프사이언스분야의 원천이 오사카에 시작함. 뛰어난 연구기관이 키타오사카 지역에 집적해, 기초연구를 비롯해 산학연계 등에도 적극적으로 결합. 바이오클러스터 발전의 열쇠인 바이오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환경기반을 갖추

○ 제조기업의 집적지

- 제약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의 집적에 대해서도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가전대기업을 시작으로 “칩솔부터 로켓까지 만든다”는 말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오사카에 집적해 있음

□ 클러스터 진출기업 지원 정책

○ 설비 보조금 지원 제도 (사이토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

- 보조금 지급 대상

-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 50명 이하의 바이오 벤처 기업
- 단, 대기업 혹은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50%이상의 출자를 받은 기업은 제외

- 보조금 지급 분야

- 입주 시 필요한 혹은 입주중 도입하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 설비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렌탈 혹은 할부계약으로 구입한 경우, 1건 당 금액이 50만엔 이상인 설비
-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1건당 10만엔 이상인 설비
- 사무목적설비(업무용 컴퓨터 등)는 대상이 되지 않음

- 보조금 지급액

- 보조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비에 필요한 비용의 2분의 1이내, 1년 회계년도당 100만엔이 한도

- 입주 기간중 최대 500만엔(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까지 신청가능

- 보조금 교부 절차

- 교부신청서작성 -> 보조금 교부심사 -> 보조금 교부 결정 -> 설비구입 실적신고 -> 보조금 청구

○ 인큐베이터 임대료 지원제도(이바라키시 바이오 인큐베이션)

- 보조금 지급 대상

-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종업원 50명 이하의 바이오 벤처 기업
- 대학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창업한 기업
- 대학의 교수 혹은 학생이 창업한 기업
- 대학과 함께 공동연구를 행하는 기업

- 보조금 지급액

- 보조금 지급 대상이 이바라키 시민 혹은 이바라키 시내에 본사를 소유하는 경우, 1평방미터 당 1,250엔 지원하며, 산출한 보조금이 12개월 기준 150만 엔을 넘을 경우, 150만 엔이 한도
- 보조금 지급 대상이 이바라키 시민이 아니거나 이바라키 시내에 본사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1평방미터 당 1,000엔을 지원하며, 산출한 보조금이 12개월 기준 120만 엔을 넘을 경우, 120만 엔이 한도

- 보조금 교부 절차

- 교부신청서작성 -> 보조금 교부심사 -> 보조금 교부 결정 -> 임대료 지불신고 -> 보조금 청구

- \* 상기 클러스터 지원제도와 별개로 오사카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서 기업입지촉진보조금과 부동산취득세, 법인세 경감 등의 세제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8. 이스라엘

- \* 이스라엘은 별도의 산업 클러스터 입주 지원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투자 지원 정책은 외곽 지역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또한 2010년 말부터 다음과 같은 다국적 금융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 이스라엘의 금융 연구개발(R&D) 센터 지원 프로그램

- \* 2010년 말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는 다국적 금융 기업의 유치를 통해 금융 산업의 기술 개발 및 수출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 연구개발 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함

#### ○ 지원 자격

- 외국 기업으로써 이스라엘 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연간 매출액 100억불 이상
- 상업은행, 금융 중개, 신용카드, 증권거래 등 금융 기업에만 국한됨

#### ○ 인센티브

- 투자 인센티브는 프로젝트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별도의 로열티는 없음.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투자 지역 및 연차별로 상이하며 5년간 승인된 예산의 최대 50%까지 지원됨

<연차별 지원 보조금 규모>

지역	국가우선지역 (Galilee, Negev 등 지역)	기타 지역
1-2년차	프로젝트 연간 예산의 50%	프로젝트 연간 예산의 40%
3-4년차	프로젝트 연간 예산의 40%	프로젝트 연간 예산의 30%
5년차	프로젝트 연간 예산의 35%	프로젝트 연간 예산의 25%

○ 프로젝트 보조금 신청 절차

- 보조금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에 명시된 “금융 앵커 기업 정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산업노동통상부의 수석 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에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센터의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과제와 필요 예산 규모 및 종업원 고용 계획
  - 최소 25명(1년차), 50명(2년차), 80명(3년차부터)의 종업원 고용을 보장한다는 이행 각서
  - 연구센터의 운영 담당 관계자 목록
  - 프로젝트 과제, 투자 규모 및 위치 등에 대한 정보. 2차 벤더를 통해 센터를 운영할 경우, 해당 벤더에 대한 정보도 포함
  -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동안 고용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행 각서. 2차 벤더를 통해 센터를 운영할 경우 해당 벤더의 이행 각서도 포함
  
- 수석과학관실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고 전문가는 신청에 대한 권고안을 내부 위원회에 제출함
  
- 내부 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권고안과 신청 업체 및 연구 과제의 기술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 내부 위원회는 정해진 날짜에 열리며 신청 접수된 모든 프로그램을 비교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승인하게 됨. 이미 프로젝트를 승인 받은 업체도 1년에 한차례 추가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 기타 요건

- 연구개발 센터의 종업원 중 90% 이상이 이스라엘 시민이어야 함
- 최소 25명(1년차), 50명(2년차), 80명(3년부터)의 종업원 고용
- 이스라엘 내 프로젝트 진행 시 2차 벤더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차 벤더의 종업원 중 90% 이상이 이스라엘 시민이어야 함

□ 앵커기업 고용금 지원 프로그램

- \* 이스라엘 산업노동통상부에서는 이스라엘 외곽 지역의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앵커기업 고용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지원 자격

- 100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
- 업체 총 평균 임금이 이스라엘 전체 평균 임금의 1.5배(약 12,000세켈 또는 3,000달러)를 상회
-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2,500만불 이상
- 우선 지역(Galilee, Negev 등 지역)에 투자

○ 지원 내역

-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업체는 4년간 다음과 같은 고용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됨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고용 보조 비율	35%	30%	10%	5%

□ 해외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성장 성공 사례

\* 이스라엘의 금융 연구개발(R&D) 센터 지원 프로그램은 2010년 말 발표되어 아직 대표적인 클러스터 성장 성공 사례는 없으나 2011년 다음과 같은 다국적 금융 앵커 기업의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함

○ 씨티(Citi)

- 산업통상노동부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미국의 씨티는 이스라엘 내 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 말까지 약 50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임
- 프로그램을 통해 씨티는 약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향후 5년 안에 3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임

○ 바클레이(Barclay)

- 영국의 바클레이 또한 2011년 이스라엘 현지 IT 서비스 업체인 네스 테크놀로지(Ness Technologies)를 통해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약 5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음

## IV. 정책적 시사점

### □ 해외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조사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클러스터 입주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은 간혹 찾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앵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유치 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음. 조사된 국가 중 앵커기업에 대한 유치 정책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미국 일리노이 주의 High Impact Business 프로그램이나 인디애나 주의 Edge credits, 그리고 이스라엘의 앵커기업 고용금 지원 프로그램 정도임
- 더구나 해외 사례에서 조사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이스라엘의 금융 연구개발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다가, 앵커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에, 해외로부터 앵커 기업 유치에 주로 힘을 쏟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다지 해외 사례로부터의 교훈을 얻기가 힘든 상황임. 이에 우리로서는 독자적으로 해외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지역별/산업별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필요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별/공단로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투지역에 대해 투자 금액에 따라 일괄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별/산업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 결과, 지자체 별로 동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과당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천편일률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투자 유치시 협상력이 떨어짐. 따라서 지역별/산업별로 인센티브를 차등화하여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특히 외투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결합한다면, 낙후 지역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 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클러스터 육성 정책의 교통정리 및 핵심 클러스터 육성 필요

- 현재의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다기에 걸쳐 있어서 지역 간 산업 중복이 심하고, 역량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있음. 또한 지자체가 너도나도 유망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여 클러스터 간 차별성이 부족한 점이 현실임. 예컨대 지역전략산업에 있어서 바이오의 경우 16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강원, 대전, 충북, 경남, 제주 6곳이 선정되어 있는 등 정책에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지자체간 외투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바,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육성 산업을 선정하기 보다는 거꾸로 접근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별로 전국적으로 대표적 클러스터를 1개씩만을 한정, 선정하여 이를 중점 지원 및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 있어 핵심 클러스터 선정에서 누락되는 경우 예상되는 지자체의 반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핵심 클러스터 선정은 매우 공정,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함. 다만 선정 단위로서 클러스터는 반드시 전용 공단/기초 지자체와 같이 지역적으로 협소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고, 기존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로 맺어질 수 있는 연계성과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감안할 수 있는 만큼의 광역성이 반영되어야 함. 즉 클러스터의 범위가 반드시 기존의 지자체 단위에 얽매일 필요는 없음.

□ 클러스터별 기업 입주 시 인센티브 정책 마련

- 클러스터에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 해당 업종의 기업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 져야 함. 해당 업종의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업종을 세분류화하여 규정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허용하고, 또 업종이 다르더라도 Supply chain 상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같은 해당 업종이라 하더라도 일반 기업 보다는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훨씬 큰 앵커 기업들을 타겟팅하여 이에 대해 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해야 함. 단 관련 산업 여부 혹은 앵커 기업 여부는 투자 유치의 타겟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인센티브는 프로젝트의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여부 (고용 창출, 기술 이전 등의 면에 있어서)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 또한 지자체를 상대로도 클러스터 해당 업종에 대한 외투기업 유치율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차등화 함으로써, 지자체가 보유 클러스터의 산업에 해당하는 외투기업의 유치에 힘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

□ 지역 특화 사업별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강화 필요

- 현재 지역별로 지역특구(예컨대, 진안 홍삼 한방특구 등)가 다수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지역특구별로는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바, 이러한 프로젝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의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물색, 접촉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구별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 공유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주의를 끌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익 가능 사업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함. 특히 동 과정에 국가 IPA인 IK를 참여시켜 프로젝트에 대한 IR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임

□ 특별구역 및 기존 국내 산업 기반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필요

-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특별구역은 주변의 경제적 연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종의 “섬”처럼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향후의 클러스터 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별구역이 섬으로서 운영되기보다는 지역의 인근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더구나, 클러스터 성장의 핵심 요소는 자국의 기존 산업 기반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핵심 클러스터가 선정되고 난 후에는, 국내 관련 산업 기반의 이전 및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이전시에도 중점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지급될 필요가 있음. 물론 현재에도 국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으나,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한 해당 여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클러스터 발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임

□ 신규 투자에서 증액 투자에 이르는 선순환 창출형 투자 유치 노력

- 현재의 투자 유치 노력은 신규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보다는 증액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더 우수함. 더욱이 기존 투자 기업의 증액 투자에 의해 클러스터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증액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함.

□ 국내 주요 클러스터에 대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

- 현재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없어 향후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 향후 핵심 클러스터가 선정이 되면 잠재적 투자자나 IPA의 투자유치담당자 등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핵심 클러스터에 대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필요.

□ 국내 클러스터 홍보 사업 실시

- 현재의 투자유치를 위한 IR은 지자체 차원의 IR이거나 혹은 국가 차원의 IR에 머물고 있고 클러스터별 IR 활동은 없음. 그 결과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지자체별 중복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핵심 클러스터 선정 후에는 동 클러스터에 대한 IR 활동 위주로 IR 활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클러스터가 세계적 클러스터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세계를 상대로 그 존재를 알려나가고, 세계의 다른 관련 클러스터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클러스터와 해외 클러스터 간 다양한 연계 사업을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SERI (2002),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

SERI (2010), 제2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Agrawal, A., & Cockburn, I. (2003). The anchor tenant hypothesis: exploring the role of large, local, R&D-intensive firm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1(9), 1227 - 1253

den Hertog, P., & Remoe, S. (2001). Innovative clusters: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Publications de l'OCDE*.

Feldman, M. (2003). The locational dynamics of the US biotech industry: knowledge externalities and the anchor hypothesis. *Industry & Innovation*, 10(3), 311 - 329

Giblin, M. (2008). Inward foreign investment and the clustering process: the case of the medical technology sector in Ireland

Pashigian, B. P., & Gould, E. D. (1998). *Contracts, Externalities, and Incentives in Shopping Malls: An Empirical Analysis*. Chicago - Center for Study of Economy and State

Roelandt, T. J. A., & den Hertog, P. (1999).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OECD Proceedings*, OECD, Paris.

<http://www.e-cluster.net>

<http://www.region.go.kr>

KOTRA 자료 12-068

국내 클러스터와 연계한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2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Copyright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